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88호 【루계 제23040호】 주체99(2010)년 3월 29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 설

인민생활대고조에서 로동계급의 선봉적역할을 더욱 높이자

지금 온 나라에는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3월초 대고조의 선봉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이곳 로동계급의 투쟁을 고무격려하신데 이어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군중대회에서 비날론로동계급과 함흥시민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여기에는 우리의 로동계급이 나라의 맏아들답게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어려있다.

오늘 우리의 전체 로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두에 서시여 대고조격전장들에 대한 불철주야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에서 부강번영할 우리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며 신심드높이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도 선봉적역할을 할것을 믿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은 위대한 대고조시대를 주도해나가는 선봉대이며 경제강국건설의 기둥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애국적헌신성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당의 구상과 의도를 결사관철해온 로동계급의 영웅적위훈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전후 빈터우에서 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려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대고조의 선구자도 로동계급이고 혁명의 북소리높이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은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도 로동계급이며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선군의 총대를 억세게 벼리며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한 신념의 강자들도 우리 로동계급이다.

오늘 우리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영웅적진군의 선봉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변이난 지난해에 성강의 로동계급이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고 김철로동계급이 올해의 인민생활대고조의 앞장에서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하고있으며 우리의 영웅적비날론로동계급이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워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경이적인 현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추켜든 우리 로동계급만이 창조할수 있는 자랑찬 성과이다.

오늘 우리 당은 로동계급이 시대와 혁명, 조국과 력사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총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갈것을 바라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로동계급이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잘 사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본때와 전투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야 할 때이다.

전체 로동계급은 당의 부름따라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오늘의 인민생활대고조의 선봉에서 폭풍쳐 내달림으로써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여야 한다.

지난해 12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철의 로동계급을 오늘의 총진군대오의 선봉에 세워주시고 새해 정초부터 희천발전소건설장과 재령광산, 락원, 흥남을 비롯한 대고조전투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우리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을 영웅적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 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과 사상과 뜻을 같이한다는것은 곧 장군님의 대고조사상을 신념과 의리로 받들어나간다는것이다. 전체 로동계급은 대고조의 승리로 당과 수령을 옹위하자는 불타는 각오를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한목숨바쳐 현실로 꽃피우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시간으로 높뛰여야 하며 우리의 발걸음은 장군님의 강행군보폭으로 이어져야 한다. 당의 부름이라면 남먼저 떨쳐일어나 기발을 들고 앞장에서 내달리는 선구자의 기상,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는 혁명가의 기질, 이것이 당의 대고조사상을 심장으로 받드는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인 투쟁본때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곧 우리의 실천이며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는 그 어떤 불가능도 있을수 없다는 투철한 신념과 각오가 로동계급의 심장속에서 펄펄 끓어번져야 한다. 당과 수령의 대고조사상을 충직하게 받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를 과감히 열어온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김철로동계급의 호소따라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우리 당이 로동계급을 굳게 믿고 펼친 영웅적진군이다. 로동계급은 혁명성과 전투력이 강한 사회와 혁명의 기본력량이며 강성대국건설의 핵심부대이다. 로동계급이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앞장에서 소리치며 내달려야 온 나라에 대고조기상이 약동하고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게 된다. 전체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의 선봉대답게 오늘의 총공격전을 더욱 과감하게 벌려나감으로써 선군시대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

4대선행부문은 인민경제의 기관차이며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적고리이다. 4대선행부문의 로동계급은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떠밀어나가는 경제강국건설의 기둥으로서의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대고조의 앞장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껴야 한다. 전력과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화학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에서 만가동을 보장하고 만부하를 걸수 있도록 필요한 전기와 석탄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경공업과 농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영예감을 간직하고 증산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려 질좋은 인민소비품이 쟁쟁 쏟아지게 하여야 한다.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비약하기 위한 투쟁에 로동계급이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첨단을 돌파하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진군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오늘의 대고조는 첨단돌파전이다. 최근년간 강성대국건설에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은 다 첨단을 돌파하는 투쟁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전체 로동계급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모든 전선에서 다시한번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주체화, 현대화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고 당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국방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중요부문의 로동계급은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기술기능을 소유하고 우리 식의 CNC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전체 로동계급은 위대한 당의 웅대한 설계도가 있고 선군의 길에서 다지고다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기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모든 전선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힘으로 발전적인것, 세계적인것을 척척 만들어내는 조선로동계급의 기질을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성강로동계급의 투쟁본때, 김철로동계급의 투쟁기풍, 비날론로동계급의 일본새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주체사상승리의 함성이 계속 터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꽉 차넘치게 함으로써 우리 조국땅우에 《연길폭탄》의 력사와 《천리마시대의 서사시》가 끊임없이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이 송풍기가 되여 전체 로동계급의 정신력이 최대로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조직들에서는 로동계급속에 당의 구상과 의도를 깊이 심어주는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패기있게 벌려 그들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정치사업방법들을 창조하고 적극 활용하여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간직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타는 애국의 열정이 활화산처럼 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새 세대 로동계급이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전통을 빛내이며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워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고조분위기를 계속 앙양시켜나감으로써 로동계급이 일하는 그 어디에서나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퍼지도록 하여야 한다.

전체 로동계급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대고조진군의 선봉에서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이자

흥남가스화대상공사 빠른 속도로 추진

흥남가스화대상공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올해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가스화대상공사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사를 앞당겨 끝내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해주시였으며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흥남가스화대상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날마다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중앙과 도에서 내려온 일군들과 함경남도안의 기관, 기업소들에서 달려온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면서 전반적공사를 빠른 속도로 다그치고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가스화대상공사를 다그쳐 끝내는것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도안의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고있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당위원회일군들은 들끓는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 공사속도와 질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하면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고있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과 도당위원회일군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련관단위 일군들은 방송선전차활동,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강화하고 직관선동을 활발히 벌려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공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온 공사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가운데 날에날마다 사람들을 놀래우는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사의 주인된 높은 책임감을 안고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들은 청정, 합성공정의 압축기실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있으며 산소분리기랭동기실건축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 함흥산업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치렬한 돌격전을 벌려 공사장전반구역에서 하부구조망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가스발생로건축공사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함흥산업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저탄장 및 건조분쇄장건축공사에서 련일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중앙물리탐사단과 도먼바다어업관리국,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함흥모방직공장, 흥덕, 흥남, 해안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화학정수장과 침전지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상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설비, 장치물제작 및 조립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져 공사장의 면모가 날로 새로와지고있다.

도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온 기능공들이 설비, 장치물제작과 조립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맡은 설비조립전투에 달라붙어 날마다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가스발생로장치물제작과 조립작업을 본때있게 다그치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함흥산업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저장조와 급탄기, 재배출판제작을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성천강전기공장, 대동강전기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에서는 설비, 장치물들을 제작하는족족 가스화대상공사장에 보내주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벼랭상모판씨뿌리기 시작

황해남도 농촌들에서

황해남도안의 협동벌들에서 벼랭상모판씨뿌리기가 시작되였다.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농사차비를 알심있게 해온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씨뿌리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곳 농장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가르쳐주시면서 가까운 년간에 도달해야 할 알곡생산목표를 정해주시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올해의 농업생산목표를 높이 세운데 맞게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당면한 벼랭상모판씨뿌리기와 관련한 영농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얼마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옹진군에서 벼랭상모판씨뿌리기를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보여주기사업에 이어 일군들이 시와 군들을 맡고나가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도록 기술지도를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수대,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옹진군안의 농촌들에서 날자를 옳게 정하고 씨뿌리기에 들어갔다. 이곳 군안의 농업부문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데서 식량문제해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농업근로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씨뿌리기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안악군 오국, 재령군 삼지강, 신천군 명석협동농장과 새날농장을 비롯한 재령벌안의 농촌들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벼랭상모판씨뿌리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일기조건, 벼품종별에 따르는 모내기날자 등을 타산하여 일정계획을 세우고 씨뿌리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다른 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도 봄철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킬 한마음안고 흙보산비료와 생물활성퇴비로 모판을 잘 걸구고 모판수평상태와 씨뿌림량 등을 따져보면서 모든 일을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연백벌안의 농촌들에서도 벼랭상모판씨뿌리기가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배천군을 비롯한 벌안의 농촌들에서는 질좋은 거름과 모판자재들을 착실히 마련해놓고 씨뿌리기에 들어갔다. 비상히 앙양된 농업근로자들의 열의에 맞게 이곳 일군들은 배낭을 지고 현지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고무된 배천군 조옥희, 금성협동농장, 연안군 읍협동농장과 오현협동농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벼랭상모판씨뿌리기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그들은 다수확품종논벼종자의 싹틔우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는것과 함께 감이 드는 차제로 모판만들기를 앞세우고 씨앗을 정성껏 뿌리고있다.

삼천, 신원, 봉천, 강령, 은천, 태탄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군들의 농업부문 일군들도 종자처리를 앞세우면서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벼랭상모판씨뿌리기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농업부문에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승철

—옹진군 수대협동농장에서—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질좋은 세멘트를 생산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천주택건설대에서

각지에 있는 중소규모의 세멘트공장들에서 질좋은 세멘트를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탐구도입되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천주택건설대에서는 세멘트생산공정에 수직로라분쇄기를 제작도입하여 세멘트의 질을 종전에 비해 1.5배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곳 주택건설대에서 생산하는 세멘트는 탄광들의 갱도영구화에는 물론 다층살림집건설에도 얼마든지 쓸수 있는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건재는 건설의 운명을 좌우한다. 건재가 없이는 건설을 성과적으로 할수 없고 질좋은 건재를 써야 건축물의 질을 높일수 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과 덕천주택건설대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탄광갱도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질좋은 세멘트를 자체로 생산보장할 목표를 세우고 불꽃튀는 투쟁을 벌려왔다.

지배인 리영동동무를 비롯한 주택건설대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종전의 뿔분쇄기대신 보다 간단하면서도 능률적인 수직로라분쇄기 2대를 자체의 힘으로 제작설치하여 세멘트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생산공정을 확립하였다.

한대로는 세멘트원료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크링카스성이 보다 잘되게 하고 다른 한대로는 크링카의 미분도를 비할바 없이 높일수 있게 생산공정을 개건하여 질좋은 세멘트를 생산하고있다.

여기서 얻어지는 경제적리익은 대단하다. 우선 전력소비가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쇠뿔과 유색금속, 여러가지 기름과 용접봉을 비롯한 많은 자재들을 쓰지 않으면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생산과정에 생기던 먼지와 소음이 거의나 없어져 생산환경보장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이곳 대에서 기술혁신사업을 책임지고있는 조원주동무는 생산과정에 나오는 버림공기의 절대량을 되돌려 쓰는 장치를 기발하게 창안도입하여 제진공정을 간편하게 만듦으로써 로동조건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로라분쇄기가 들어있는 원통형외함의 밀폐를 잘 보장하면서도 쉽게 분해할수 있게 창발적으로 설계제작하여 기중기가 없이도 설비를 보수정비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내부예비를 탐구하여 로라망의 부분품제작에 합금을 리용함으로써 그 수명을 훨씬 늘이는 성과도 거두었다.

대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혼한 폐설물을 생산에 널리 리용하여 세멘트의 질을 보다 높일수 있는 기술적담보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지방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살림살이를 제힘으로 꾸려나갈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굳게 믿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완강한 투쟁을 벌려오는 과정에 이룩된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본사기자 김원석

강계고려약공장이

보다 현대적으로 꾸려진다

강계고려약공장이 다시금 자기의 면모를 일신시켜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르는 곳마다에 고려약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단너삼, 만삼, 두충나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약초를 많이 심어 고려약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두차례에 걸치는 현지말씀을 불타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가는 속에서도 고려약의 엑스화실현에서 기본공정인 추출농축공정을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상반년안으로 높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이 일별, 주별, 월별계획에 따라 실속있게 벌어지고있다. 당조직과 련관부문의 적극적인 고무와 방조가 이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보건성과 도안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하여 련관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공장에 찾아와 진심어린 방조를 주고있다. 공장의 설비제작과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이 우선적으로 보장되고있다.

이에 고무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첫째도 둘째도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투적으로 내밀고있다. 지배인 박성철, 기사장 김광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설비제작에 력량을 집중하여 상반년안에 결속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공장에서는 설비제작성원들을 도와 짧은 기간안에 끝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돌리고있다. 이와 함께 설비제작이 끝나는 차제로 제때에 조립을 끝낼수 있는 조건도 미리 마련해나가고있다. 전투장에 붉은기가 휘날리고 혁명가요들이 울려퍼지고있다. 최영도, 최광순, 김호철, 양은서동무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공장에서는 또한 약초의 성분을 분리할수 있는 생산공정도 꾸리고있다. 보다 현대화된 추출농축공정에 성분분리공정까지 꾸려지면 이 공장은 고려약의 엑스화, 과학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단위로 되게 된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기어이 마련하려는 이들의 불타는 창조적로력투쟁은 응당한 결실을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오현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아온 필승의 의지

력사적인 서강회의기념일을 맞으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열풍이 나래치고있는 우리 조국강산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뜨겁게 넘쳐나고있다.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선군의 총대로 조선혁명의 백승의 력사를 창조하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을 더듬느라면 서강회의가 다시금 감동깊게 되새겨진다.

70여년전 무송현 서강에서 진행되였던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며 격정의 파도를 불러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이 회의에서 총대로 조국의 해방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필승의 의지가 다시금 힘있게 선언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념과 의지, 배짱에서 우리 수령님을 따를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령님은 탁월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 강철의 령장이시였을뿐아니라 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 제일배짱가이시였습니다.》

조선혁명,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모든 사고와 활동의 출발점이였다.

항일전의 나날 그이께서는 몸은 비록 이국땅에 계시였으나 마음은 항상 조국에 두시였고 조국의 동포들에게로 달리시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이 조선혁명의 기발을 들고 투쟁하는것이 당당한 권리로, 임무로 된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늘 마음쓰신 문제가 바로 무장투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하여 조선혁명을 앙양시키는것이였다. 조국에 진출하여 원쑤들을 징벌하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모두가 품고있던 가장 큰 꿈이였을뿐아니라 국내인민들의 가슴에 타번지던 최대의 소망이기도 하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전쟁준비에 미쳐날뛰던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착취와 략탈의 도수를 비할바없이 높이였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비인간적인 경제적략탈은 조선인민을 기아와 빈궁속에 몰아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류랑걸식하게 하였다. 일제는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물론 우리 말과 글까지 없애려고 하는 한편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온갖 터무니없는 악선전을 다하였다.

조선민족이 당하고있는 가장 무서운 비극적사태는 정신이 무너진다는 바로 그 점에 있었다. 일제통치의 모든 수단들이 조선을 없애고 조선민족의 넋을 뿌리채 뽑아버리는데 집중되고있었다. 조선은 사람이 살지 못할 생지옥으로 변하였다. 동방조선에는 칠칠야밤과 같은 암흑이 끝없이 계속되고있었다.

이 지리한 예속의 밤, 굴욕의 밤을 끝장내지 못한다면 우리 어찌감히 자기들을 조선의 장부라고 할수 있으랴. 어서빨리 조국으로 나가자. 조국에 나가서 기나긴 악몽속에서 시달리는 민족의 넋에 생명을 불어넣자.

이것이 조국진군을 준비하던 나날 우리 수령님과 대원들의 가슴속에 끓어번진 일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우리가 한 5년동안 북간도와 서간도를 중심으로 하여 벌린 무장투쟁은 일본의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리였다, 그러나 혹심한 보도관제와 외곡된 선전으로 하여 인민혁명군의 전과는 국내깊이에까지 사실대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다, 이런 때에 우리가 대부대로 국내에 쳐들어가게 되면 온 나라 강산이 경탄과 감격으로 발칵 뒤집히고 인민들은 일제를 쳐부시고 조선을 독립시킬 군대가 있다고 기뻐할것이다,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조선의 혁명군대가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 이것이야말로 2천300만동포들이 조국해방성전에 과감히 떨쳐나설수 있는 힘과 의지의 기초인것이다라고 회고록에 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6(1937)년 봄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단행하신 무송원정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진공전이였다.

그해 3월 동강밀영에서 중대정치지도원급이상 간부회의를 열고 무송원정을 총화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련이어 소집하신 회의가 바로 항일혁명투쟁사에서 하나의 력사적분기점으로 되는 서강회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연설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자》**에서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족치고 원쑤들의 아성에 불을 지름으로써 인민들에게 조선인민혁명군은 건재하여 조국의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계속 승리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하며 우리 인민혁명군이 존재하는 한 조선은 반드시 독립된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힘있게 선언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방침은 대부대의 국내진출로 일제에게 정치군사적타격을 줌으로써 신음하는 조선인민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고 그들을 항일대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을 국내깊이에로 급속히 확대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그것은 정녕 투철한 자주신념과 필승의 기상에 넘쳐계시는 백두산청년장군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방침이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국내진공작전방안을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국내진공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문제, 군사행동과 함께 정치활동을 맹렬히 벌려 인민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조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불러일으키는 문제, 이번의 국내진공작전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대부대로 련속 국내에 진출하여 적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등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회의에서는 국내진공작전과 관련하여 인민혁명군부대를 3개 방면으로 진출시킬것을 확정하였으며 매 부대들의 임무와 활동방향, 활동구역이 설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국내진공을 위한 정치군사적준비를 철저히 갖추기 위하여 서강회의후 한달가량 동강밀영에서 군정훈련을 조직진행하시였다.

후날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의 어느 한 깊은 곳에서 수많은 군사를 길러내셨다는 소문이 나돌았으며 어떤 고장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중의 깊은 동굴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장수 수만명을 길러냈다는 전설까지 널리 퍼졌다. 그런 전설을 낳은 고장이 바로 다름아닌 동강의 군정훈련터 고려보자였다.

참으로 서강회의는 총대로 기어이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우리 수령님의 열화같은 애국애민의 의지가 뜨겁게 빛발친 뜻깊은 회의였다.

서강회의방침에 따라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의 총소리는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끝까지 싸워 일제를 격멸시키고 야말것이라는 조선혁명가들의 필승의 기상을 온 누리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삼천리강산을 조국해방에 대한 희망과 락관으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게 한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야말로 서강회의의 력사적의의를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필승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으로 민족자주와 정의의 길을 개척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두에 서계시였기에 우리 조국은 류례없는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백승의 한길로만 줄달음쳐올수 있었다.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며 배짱이다. 필승의 신념과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배짱이 없으면 온갖 풍파를 헤치며 나가야 하는 혁명에서 승리할수 없다.

오늘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조선혁명은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더욱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

우리 조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의 미래를 향하여 줄기차게 진군해나갈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그 신념, 그 의지를 그대로 지니시고 선군의 총대를 더 높이 추켜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력사적인 서강회의기념일을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넘쳐나는것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있는 한 그 어떤 천만대적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조선혁명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백승의 길로만 전진할것이라는 드팀없는 신념이다.

백두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항일혁명투사들이 조국에로 진군하던 그 기세로 돌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멀지 않아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의 격동적인 현실이 환희롭게 펼쳐질것이다.

본사기자 백 룡

사회주의경쟁의 불바람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의 힘찬 구절이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미곡과 은홍, 동봉과 신암, 삼지강을 따라잡기 위한 맹렬한 추적전을 벌리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인 농업전선에서 일대 기적과 비약을 일으켜 이 땅우에 행복의 오곡백과 주렁지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가 얼마나 뜨겁게 빛발치는 구절인가.

지금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 협동벌들을 찾고찾으시며 경쟁열의를 북돋아주시여 우리 농촌에 세기적변혁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자욱자욱을 돌이켜보며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일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쟁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난해 2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농장의 일군은 전해에 이룩한 알곡생산성과와 함께 2012년에 달성할 결의목표를 말씀드리였다.

그의 결의를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동봉협동농장에서 총동원하여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낸다고 하여도 알곡생산이 단번에 쑥 올라가지 않는다고, 욕망만 앞세워가지고서는 알곡생산을 늘일수 없다고 일깨워주시는것이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순간 농장일군은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과학적인 담보가 없이 주관적인 욕망만을 앞세웠다는 생각으로 자책에 잠겨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일군을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고나서 동봉협동농장을 추켜세워 앞장서나가게 함으로써 함경남도안의 협동농장들이 따라나서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동봉협동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도안의 모든 농장들이 비약하도록 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이기도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더욱 가슴깊이 새긴 농장일군은 그이께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빛내여갈 확고한 결심에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협동농장들사이에 경쟁을 하여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서로 노력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경쟁의 불바람속에 협동벌들마다에 알곡증산의 열풍이 일고 그 불길속에 온 나라에 풍요한 오곡백과 무르익게 하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높으신 뜻 어려있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였다.

나라의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불타는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장군님 일으켜주신 사회주의경쟁바람,

이는 강성대국의 대문은 금속, 전력과 함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부터 열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 낳은 애국의 불바람이며 온 나라 농촌을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켜가는 세기적변혁의 폭풍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온 나라 협동벌들에 활화산처럼 타번져 우리 조국은 인민들의 모든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나라로 더욱 빛나고있다.

림 정 호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든 사적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
—평양금속건재공장에서— 리 진 명 찍음

혁명설화

깊은 산속에서 마련된 특식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혁명생애의 갈피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모든것을 다 바치신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새겨져있다. 그가운데는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 김정숙동지께서 인적없는 깊은 산속에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였던 특식을 마련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 드린 가슴뜨거운 사실도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나에 대한 충실성이 매우 지극한 동무였습니다.》

주체27(1938)년 여름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의 몇몇 지휘관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시기 위하여 천막안에 들어서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소박한 식탁에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순두부가 올라 김을 문문 피워올리고있었다.

지휘관들은 어떻게 순두부가 마련된것일가 하고 의아함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희한하신듯 순두부를 들여다보시다가 작식대원에게 어디서 났는가고 물으시였다.

주밋거리던 대원은 위대한 수령님께 그 사연을 말씀드리였다.

순두부는 김정숙동지께서 손수 만드신것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파일대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 그곳 인민들이 대접해드리던 두부와 농마국수가 정말 별맛이였다고 자주 외우시던 그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고계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늘 어떻게 하면 그이께 순두부를 대접해드리겠는가 하고 마음써오시였다.

그때부터 자신의 배낭에 두부콩을 보관해가지고다니시기를 그 몇번…

그러던 어느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식사를 절반밖에 드시지 못한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가지고 다니시던 두부콩을 작식대원들앞에 내놓으시며 우리 함께 순두부를 앗아 위대한 수령님께 대접해드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작식대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순두부를 앗으려면 망돌과 서슬이 있어야 하는데 당장 인적도 없는 산속에서 그런것들을 얻는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였고 그런것으로 해서 순두부를 앗는다는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생각할수 없는 일이기때문이였다.

작식대원들은 자신심이 없어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머뭇거리는 작식대원들을 바라보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횡산밀영에 있을 때에는 맨손으로 국수도 눌렀는데 두부라고 못하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물론 맨손밖에 없는 형편에서 순두부를 앗는다는것이 헐치 않을것이다, 그러나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해낼것이라고 하시면서 팔을 걷고 나서시였다.

그이의 말씀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은 작식대원들은 모두 성수가 나서 두부를 앗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소금을 그릇에 담아 그늘에서 서서히 녹이시면서 서슬을 한방울, 두방울 모으시였고 망돌대용으로 나무절구를 하나 마련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불쿠어진 콩을 절구에 넣고 몰을 두면서 짓찧어서 끝끝내 순두부를 앗아내시였다.

이리하여 인적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순두부라는 특식이 마련되게 되였다.

작식대원으로부터 이 사연을 들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며 성의가 대단하다고, 나는 원래 두부를 좋아해서 우리 어머님께서 두부를 잘 앗아주었다고, 오래간만에 두부맛을 보게 되니 어머님생각이 난다고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지휘관들도 숭엄한 격정에 휩싸여 순두부를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였다.

이름없는 산속에서 마련된 특식!

정녕 그것은 단순한 특식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함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결한 충정이 낳은 결정체이며 그 지성이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영원히 따라배워야 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귀감이다.

정 순 학

증산절약은 대고조승리의 지름길

떠나고싶지 않은 고장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시며 휘황찬란할 강성대국에로 줄달음치도록 끝없이 고무추동해주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습니다.》

지난해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포시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이의 만면에는 시종 기쁨의 미소가 넘쳐흘렀다.

공장뿐아니라 거리와 살림집들이 하나같이 깨끗하고 규모있으며 편의봉사시설들도 실용성있게 잘 배치되여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족하신 어조로 만포시를 잘 꾸렸다고,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매우 좋고 생산과 인민봉사, 도시건설과 도시경영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이런것을 보고 사회주의선경이라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과분한 평가를 받아안은 이곳 일군들의 감격과 기쁨은 비길데없이 컸다.

끝없는 격정속에 설레이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확실히 자강도사람들의 일본새는 다른 지방과 대비가 안되게 섬세하며 모든 일을 정성을 기울여 한다는것이 눈에 뜨이게 알린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시의 책임일군이 앞으로 일을 더 잘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데서 만포시가 전국의 앞장에 서겠다고 결의다지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미덥게 바라보시며 그 배심이 마음에 든다고, 모든 일에서 남보다 앞서나가겠다는 야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된 도시의 전경을 다시금 둘러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에서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 나래치고 벌써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였다고, 모든 일이 잘되여나가니 자강도에 오면 정말 기쁘고 만시름이 다 풀리는것 같다고, 오면 떠나고싶지 않은 곳이 자강도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오면 떠나고싶지 않은 곳! 얼마나 뜻깊은 말씀인가.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강도에서처럼, 만포사람들처럼 오직 혁명의 수뇌부와 사상도 뜻도 운명도 함께 하며 애국의 넋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자기 사는 고장과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릴수 있고 내 조국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수 있다는 숭고한 사상이 담긴 뜻깊은 말씀이였다.

본사기자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대고조사상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고조시대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기적과 앙양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경제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요구입니다.》

증산절약은 인민경제발전의 중요한 요구이다. 증산을 해야 생산장성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고 절약을 해야 있는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보다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있다.

경제건설에서 증산절약이 중요하기때문에 우리 당은 일찍부터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이 사업을 전사회적으로, 전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도 절약이자 증산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끊임없이 증산하며 한공수의 로력, 한W의 전력, 한방울의 연유라도 극력 아껴쓰는데 오늘의 대고조승리의 지름길이 있다.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경제를 첨단수준에 올려세우고 생산과 건설에서 전례없는 앙양을 일으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해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동하고 효과있게 리용하여 하나라도 더 많이,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생산하여야 할 때이다. 생산이 끊임없이 장성해야 경제가 활기를 띠며 발전하고 인민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며 절약하는것만큼 생산이 늘어나고 나라가 부강해지게 된다.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최대한으로 절약하자, 이것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다.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생산장성속도를 최대한 높여 경제강국건설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생산장성속도를 높인다고 할 때 그것은 같은 조건, 같은 기간에 생산량을 대폭 늘이거나 본래의 기준이나 계획보다 훨씬 초과수행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생산장성속도가 증산에 정비례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생산장성속도를 높이는데서 절약도 중요하다. 만일 로력과 자재, 설비를 합리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고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원가를 극력 낮춘다면 그만큼 더 생산한것과 같다. 그러나 계획을 넘쳐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막대한 원가를 들였다면 사실상 그것은 생산장성이라고 할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절약은 생산장성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증산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할수 있다.

증산절약은 비약과 혁신의 중요한 척도로 된다.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경제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고 모든 면에서 첨단을 돌파해야 하는것이 오늘의 시대적요구이다. 종전에는 하루에 하던것을 지금은 한시간에 앞당기고 어제의 100%를 오늘은 200% 또는 그 이상으로 넘쳐하며 최소한의 원가를 들여 최대한의 실리를 얻는것이 비약이고 혁신이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더욱 현대화, 과학화하고 인적, 물적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돌파할 때 경제건설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 금속공업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생산적앙양을 두고 이렇게 말할수 있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여러 기업소들에서는 우리 식의 철생산체계를 빛나게 완성한데 이어 완강한 투쟁을 벌려 올해에도 년초부터 매달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경험은 생산을 늘이면서 동시에 절약투쟁을 보다 실속있게 활발히 벌려나간다면 나라의 경제장성속도를 전반적으로 높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력갱생의 강국이다.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야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세계의 《일체화》흐름에 말려들어 혼란을 겪고있다. 현실은 자립적민족경제발전의 길에 강성번영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믿을것은 오직 자기자신이며 제힘뿐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식의 정당한 경제건설로선과 위력한 창조방식이 있으며 수십년간 피땀으로 이룩해놓은 강력한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다. 나라의 경제를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고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는데서 증산하고 절약하는것은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구슬도 꿰여야 보배가 되듯이 우월한 자립경제도 생산을 짱짱하고 나라의 자원과 재부를 잘 써먹어야 더욱 빛이난다. 현실은 경제가 나날이 활성화되고 장성할수록 나라의 자원과 재부를 극력 아끼고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 때 자립경제의 위력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강선의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현대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하는 초고전력전기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 강철증산의 돌파구를 열고 국가에 막대한 리득을 가져다주었다. 이들처럼 선진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적은 원가를 들여 최대한의 실리를 얻고 생산능력을 몇배 또는 몇십배로 높이는것이 제힘으로 일떠서고 흥하는 길이다.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 경제강국건설의 목적이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총공세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지이다. 당의 뜻을 빛나게 꽃피우는데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가 하나하나 마련해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는 굳건하다. 문제는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어떻게 내미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이야말로 나라살림살이를 더욱 깐지게 하고 하나라도 극력 아껴써야 할 때이다. 한g의 석탄, 한W의 전력, 한방울의 연유도 극력 아껴써야 나라의 재부가 그만큼 늘어나고 인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진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삼일포특산물공장을 비롯하여 인민생활에 크게 이바지하는 단위들이 많다. 이런 단위들은 례외없이 기술을 혁신하고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보다 적은 로력과 자재, 원료를 가지고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만들어내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이런 단위들처럼 조건과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면 인민생활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함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김 정 수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혁신적안목으로 방도를 찾고 떠밀어줄 때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방도를 찾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비결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볼 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이 주목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는데 모를 박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 세폭의 붉은기가 총진군대오에 더욱 힘차게 나붓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 정초 이곳 당위원회에서 총공세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방도적인 문제를 토의할 때였다.

담당단위에 나가 살다싶이 하는 일군들이니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는 좋은 방도를 내놓으리라고 생각하였던 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일군들이 내놓은 방안들이 크게 혁신적이지 못했기때문이였다.

현실을 보는 창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책임일군은 지체없이 금골광산으로 내려갔다.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모든 일군들이 새로운 눈으로 현실을 대하고 옳은 방도를 찾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였다.

금골광산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자취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령도업적단위였고 4. 5갱은 공업부문을 대표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지펴올린 고귀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단위인것만큼 그 어느 단위보다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높았고 대중운동에서도 앞서나가고있었다.

금골광산의 막장에 들어간 책임일군은 광산에서 올해에 새로 세운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들을 료해하기도 하고 현장지휘부에서 초급당비서, 분초급당비서, 당세포비서 그리고 광부들과 마주앉아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광산에서 세운 모든 결의목표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그만하면 원만하다고 볼수 있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놓친것도 없지 않았다. 책임일군은 일군들의 안목을 틔워주면서 당원들이 올해의 총공세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자면 어떤 사업들을 더 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한조항씩 실례를 들어가며 더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막장지휘부로 가는 100m구간에 만들어놓은 직판물들의 실효를 더 높일수 있게 하는 문제, 사무실청사와 막장의 적당한 곳에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더 게시하여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대고조에로 불러일으킬데 대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기술혁명결의목표에서도 광물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언제까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풀어나간다고 구체적으로 반영한것은 좋으나 기술혁신운동에 몇몇 기술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참가하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전환되도록 깨우쳐주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착상하여 완성한 어느 한 기술혁신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한건이상의 기술혁신안을 완성하자고 호소하였다.

문화혁명결의목표에는 검덕공업대학 현지학습반을 실속있게 운영하는 문제, 종업원들의 학습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문제, 예술소조활동에서 앞선 갱들의 경험을 따라배워 모든 전투장들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높이 울리게 할데 대한 문제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광부생활실과 혁신자식당을 실속있게 운영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도 결의목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들여다본 소득은 대단히 컸다. 책임일군의 창조적인 일본새는 일군들을 각성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모든 일군들의 현실을 보는 눈이 새로와지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좋은 방도들을 많이 찾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새로운 방도들을 찾은 당위원회에서는 금골광산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렸다.

금골광산에서 진행한 보여주기사업은 많은 품을 들인것으로 하여 련합기업소의 여러 단위 당, 행정일군들의 눈을 보다 새롭게 틔워주어 좋은 반영들이 제기되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련합기업소의 모든 전투장들에서는 대중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금골광산과 로은광산은 더 말할것도 없고 검덕갱과 공무분공장 설비조립직장을 비롯한 모든 전투장들에 총돌격전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고 광물생산에서는 혁신과 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새로운 안목으로 현실을 보면 새로운 방도를 찾을수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금골의 모든 전투장마다에 승리의 함성이 터져나오게 하고있는 검덕광업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경험이다.

본사기자 송창윤

백마디의 말을 대신한 참관사업

곡산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을 내세워주고 방식상학, 참관사업 같은것도 조직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며 이 운동에 대중이 높은 열의와 의욕을 가지고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는 여러 생산공정들을 흐름식으로 개조하고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기초식품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 곡산식료공장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꾸려진 여러동의 생산건물과 흐름식으로 개조된 생산공정들, 원료창고들을 꽉 채운 원자재 등을 돌아보며 일군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 비결을 묻는 일군들에게 지배인 최영옥동무는 앞선 단위들에 대한 참관사업이 큰 은을 내였다고 하였다.

공장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기술혁명결의목표에 당과류생산공정을 흐름식으로 개조할 과제를 반영하였을 때였다.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시작한 일이였으나 정작 착수하고보니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이 많았다. 제일 안타까운것은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이 사업에 신심있게 나서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이런 때 초급당비서 김광남동무가 앞선 단위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초급당위원회는 참관사업을 종전처럼 일군들이 기술자, 기능공들을 데리고 해당 공장에 찾아가 생산공정들을 유람식으로 돌아보는 방법으로 조직하지 않았다.

참관사업의 목적과 의의를 알려주어 모든 참관자들이 이 사업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하게 하였다. 참관이 끝난 후에는 느낀점을 발표하고 공장의 기술혁신과 관련한 한가지이상의 착상을 내놓도록 사업을 조직하였다.

이것 역시 참관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로 되였다. 좋은 기술혁신안들이 많이 쏟아져나왔다.

참관사업은 한두개 단위가 아니라 도의 지경을 벗어나 평양과 지어 수백리 떨어진 각 지방의 공장들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은 그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따라배우고 새로운 경험과 기술도 배우게 되였다. 바로 이런 과정에 과자생산공정을 흐름식으로 개조하는 설계가 완성되였다.

참관사업의 실효는 그 제작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참관사업을 통하여 앞선 단위의 당원들과 로동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직접 체험하게 된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여 자체의 힘으로 과자성형기를 만들기 위한 전투를 벌렸다. 지배인, 초급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앞채를 메고 달리였다.

우리는 여기에 설비제작을 위해 땀을 바친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대하여 다 적지 않는다.

그들의 불같은 열정은 끝내 성공을 안아왔다.

당과류생산공정이 흐름식으로 개조됨으로써 로력은 1/7로 절약되고 생산능력은 무려 5배로 뛰여올랐다. 제품의 질도 훨씬 높아졌다. 대단한 성과였다.

참으로 초급당위원회가 앞선 단위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한것은 백마디의 말을 대신한 위력한 정치사업이였다. 기술혁명결의목표수행에 박차를 가하게 한 이런 참관사업은 자주 할수록 좋다.

본사기자 손영희

사상전선의 기수가 되여

함흥시위생방역소 학습강사 주승경동무

함흥시위생방역소를 찾아가게 되면 누구나 《정열적인 인간》, 《재능있는 학습강사》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따르는 당초급선전일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가 바로 시위생방역소 학습강사 주승경동무이다.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실력있는 학습강사로 되게 하고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사상적으로 준비되고 동원되면 실천활동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주승경동무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거치른 자본주의 일본땅에서 나서자란 자기를 어머니조국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고 인간생명을 책임진 보건일군으로, 당초급선전일군으로 내세워준 고마운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해갈 뜨거운 마음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하기에 그는 당초급선전일군의 첫걸음을 떼던 30여년전 그날부터 오늘까지 자신의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누구보다도 더 아글타글 애쓰며 이악하게 학습하였다.

그는 높은 학습목표를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들, 당보를 비롯한 당출판물들을 열심히 탐독하면서 우리 당의 사상과 리론, 정책들을 원리적으로 깊이 있게 체득하였다. 그리고 군사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학습을 열심히 하여 지식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또한 강의내용에 활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교양자료들과 참고자료들도 품들여 준비하였고 화술기량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한번 강의를 하여도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고 마음을 움직일줄 아는 능력있고 실력있는 학습강사로 대중의 존경을 받게 되였다.

그는 재능있는 학습강사일뿐아니라 본신혁명과업수행과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대중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있다.

최근시기 그가 발표한 창의고안, 소론문만 해도 10여건이나 된다.

오늘 함흥시위생방역소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위생적으로 더 잘 꾸려지고 보건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당의 예방의학적시책을 대중에게 널리 해설선전하는 훌륭한 교양거점으로 변모되여가고있는 성과속에도 당의 사랑과 믿음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려는 주승경동무의 창조적인 사색과 뜨거운 열정이 깃들어있다.

본사기자 황철웅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고원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기술을 혁신해야 앞길이 열린다.

이것은 고원은하피복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기간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그 덕을 톡톡히 보는 과정에 찾은 결론이다.

필요한 전기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풀어온 과정 하나만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이 단위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발전소에서 지난 10여년간 생산은 물론 수백세대 살림집과 10여개 대상들에서 요구하는 전기를 공급해주고있다. 이런 훌륭한 성과는 저절로 생긴것이 아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르는 곳마다에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면 나라에서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많은 전력을 생산할수 있고 송전선도 많이 절약할수 있습니다.》

전기문제해결도 역시 일군들의 관점과 립장에 크게 달려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 단위에서 발전소건설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생각은 하나와 같지 못하였다.

로력구성에서 녀성들이 태반인 공장의 실정에서 무슨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겠는가, 발전소를 건설해본 경험도 없고 기술자들도 없으며 필요한 자재도 긴장한 조건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전기문제만은 자체의 힘으로는 해결할수 없다는것으로 된다.

하지만 초급당일군은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르는 곳마다에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문제는 당정책적요구이다. 문제는 일군들이 당의 요구를 어떤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이렇게 결심한 초급당일군은 신심이 없어하는 사람들에게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할데 대한 당정책적요구와 그 정당성을 이미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덕을 보고있는 단위들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알기 쉽게 해설선전하였다. 한편 초급당위원회는 전기문제해결에서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배워오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참관조직사업이 있은 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견해에서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났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발전소건설을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일군들은 사무실을 발전소건설전투장에 옮기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투적으로 풀어나갔다. 물론 발전소건설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우리 당정책관철에서는 한치의 드팀도 없어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나가 마침내는 성공의 빛을 보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발전소를 건설한데 그친것이 아니라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실지로 덕을 보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오늘도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단위의 생산에서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발전소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현장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그리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대책도 면밀히 세워주고있다. 이 나날에 발전소에서는 여러가지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전기생산을 늘여 나라살림살이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있다.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술혁신이야말로 발전의 귀중한 열쇠라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본사기자 최시홍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분덕군 동림협동농장 청년작업반원들이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불타는 일념으로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인민생활향상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할 총공세의 해에 농업전선을 지켜선 영예와 보람이 작업반원들의 얼굴마다에 한껏 어려있다.

자기 힘, 자기 손으로 땅을 기름지워 풍요한 가을을 안아온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농사를 본때있게 지을 한마음으로 청년작업반원들은 품종별종자들을 놓고 씨뿌리기를 잘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토의해간다.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작업반장 장명순동무와 청년작업반원들의 가슴속에는 간석지논농사정형도 헤아려보시면서 종자를 개량하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벼정보당 수확고를 높일데 대하여 일일이 깨우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깊이 간직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쌀로써 결사옹위하는 농민영웅이 되자!

이런 불타는 맹세를 안고 청년작업반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포전마다 질좋은 거름무지들을 산더미같이 쌓았으며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갔다.

오늘도 이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포전마다에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간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정민

전망이 좋은 축산기지

신천군 반정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고기를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줄수 있고 거름을 내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습니다.》

올해공동사설과 김철로동계급의 편지를 받아안고 들끓고있는 신천군 반정협동농장 축산작업반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한다. 집짐승우리들과 먹이가공실 등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된것은 물론 우리마다에 돼지와 토끼, 닭, 오리, 게사니들이 욱실거리는 모양이 더욱 볼만해서이다.

쉽게 이룩된 성과가 아니다. 환경과 여러가지 보장조건에 예민한 생명체를 다루어야 하는 축산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우선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농장일군들은 바로 이 문제를 중시하고 축산기지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실천에 옮기였다.

농장원들속으로 들어간 리당일군은 축산을 잘하여 덕을 보고있는 단위들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우리 힘으로 축산기지를 보란듯이 잘 꾸려보자고 신심을 안겨주었다.

건설장은 부글부글 끓었다. 하루일을 앞당겨 끝낸 많은 농장원들이 스스로 달려나와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쳤다. 청년들이 돌격대를 뭇고 축산기지건설에 필요한 목재를 해결하기 위한 힘겨운 전투를 벌릴 때 농장원들은 수천장의 블로크를 찍어냈고 일군들은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리길을 달렸다. 이들의 지칠줄 모르는 투쟁에 의하여 축산기지는 하루가 다르게 자기의 자태를 드러냈다.

품을 들이며 노력한 보람은 컸다. 짧은 기간에 바람이 잘 통하고 실내온도가 알맞게 보장되도록 설계된 4개 호동에 100여칸의 돼지우리와 먹이창고, 먹이가공실 그리고 토끼, 닭, 오리, 게사니를 비롯한 집짐승을 기를수 있는 덩지큰 축산기지가 손색이 없게 건설되였다.

농장에서는 축산기지건설과 동시에 집짐승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일군들은 우량품종의 집짐승을 기르는 단위들을 찾아 먼곳을 다녀오기도 하고 축산작업반의 기술자, 관리공들이 집짐승기르기를 잘하고있는 단위들에 가서 그들의 경험을 배워오도록 하였다. 농장에서는 축산기지를 새롭게 꾸린데 맞게 먹이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 주변의 여러곳에서 빈땅을 찾아 먹이작물포전과 풀판도 더 조성하였다.

과학기술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당의 축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명심한 농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과학자들의 방조속에 집짐승먹이첨가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었다.

성과는 컸다. 먹이문제가 풀리자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의 증체률이 높아지고 마리수가 늘어나 축산물생산을 추켜세울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축산을 통이 크게 내밀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름으로 부침땅의 지력을 높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게 되였고 농장원들의 생활도 더욱 윤택하게 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여갔다.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농장의 경험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렇게 말하군 한다.

축산은 품을 들인것만큼 된다고.

본사기자 김순홍

부림소관리에 힘을 넣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안악군 신촌협동농장** 일군들이 부림소관리공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당면한 농사차비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씨뿌리기전투를 앞두고 부림소품평회가 진행되던 날이였다. 제2작업반 강일룡동무가 관리하는 부림소를 본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부림소의 영양상태가 제일 좋았던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제4작업반 장춘남, 제12작업반 강호범, 제5작업반 리명산동무들도 부림소관리를 잘하여 농사차비에서 한몫하도록 하였다. 농장일군들은 부림소관리공들의 책임성이 높아질수록 그들과의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었다. 농장에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부림소관리공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였다.

로농통신원 렴창성

기다려지는 사람들

강서구역출판물보급소 일군들과 출판물보급원들

《기다려지는 우리 출판물보급원들》, 이 호평은 강서구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평가해주건말건 오로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새겨주기 위한 도서선전활동을 꾸준히 벌려나가는 이들의 불같은 열정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아마도 적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출판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곳 출판물보급소 일군들과 출판물보급원들은 새로운 도서가 출판되여 배포될 때마다 도서선전활동을 참신하게 벌리기 위해 애썼다.

새로운 도서가 나올 때마다 출판물보급소의 사무실불빛은 꺼질줄 몰랐다. 소장 김선녀, 당세포비서 돈혜숙동무들은 공장, 기업소, 기관들에 대한 출판물배포사업을 면밀히 짜고드는것과 함께 김철의 호소따라 온 나라가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는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서선전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군 하였다. 언제나 군인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수록한 새로운 도서가 출판물보급소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인민군군인들에게 친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한 혁명일화를 집중적으로 묶어 편집한 도서였다.

출판물보급소일군들과 출판물보급원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출판물보급원 리정순, 우정순, 김금희동무들은 도서선전을 《동지애의 노래》를 비롯한 혁명적인 노래를 배합하여 참신하게 진행하자는 창발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보급원들은 도서해설제강을 품을 들여 만든 다음 며칠밤을 꼬박 새워가며 시범출연과 합평회를 거듭하였다.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출판물보급원들이 금성뜨락또르공장, 강서편직공장, 강서탄광에 나가 짬시간을 리용하여 진행한 도서선전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던것이다.

풍부한 감정과 능란한 화술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도서선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친어버이이시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는 중요한 교양과정으로, 그들을 혁명적대고조에로 부르는 경제선동과정으로 되였다.

최근에만 하여도 이들은 수많은 위대성도서들을 통한 도서선전활동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이들의 도서선전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인상이 깊었던지 구역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출판물보급원들을 만날 때면 언제 자기 단위에 내려오는가고 묻는것이 하나의 인사말처럼 되였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출판물들을 배포하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의 사상과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는 교양자, 선전자의 립장과 자세에서 도서선전활동을 벅찬 시대적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벌려나가는 이들의 소행은 긍정할만 한 일이다.

본사기자 최일호

씨뿌리기준비를 실속있게

신흥군 창서협동농장에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게 될 뜻깊은 올해의 이채로운 봄풍경은 신흥군 창서협동농장에도 펼쳐지고있다. 전투장들마다에서 세차게 휘날리는 붉은기들, 알뜰하게 정돈된 네모반듯한 모판자리들, 여기저기에 무드기 쌓여있는 모판용부식토와 흙보산비료더미들, 말장을 비롯한 각종 모판자재들 …

그 어느 작업반, 분조에 가보아도 당장 씨를 뿌릴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가고있는 미더운 농장원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기어이 풀겠다는 혁명적각오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야 합니다.》

씨뿌리기준비가 한창이던 어느날 모판자재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던 농장일군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기본모판자재들은 준비되였지만 말장을 비롯한 일부 자재만은 그렇지 못했다. 여러가지 농사일로 하여 로력도 긴장하였던것이다.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이때 농장일군의 확신성있는 목소리가 울리였다.

《작업반별로 사회주의경쟁을 하자는것을 제기합니다.》

사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시기 중요한 영농공정들마다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진행하여 제기되는 영농작업들을 어김없이 수행하군 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키고 제기된 작업과제들을 최단기간내에 질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사회주의경쟁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였던것이다.

이렇게 지난 기간을 돌이켜본 일군들은 그 제의를 지지해나섰다.

다음날부터 작업반들마다에서는 말장확보를 위한 경쟁이 시작되였다. 땔나무림이 농장에서 먼곳에 있는것으로 하여 조건이 불리했지만 남먼저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돌격전의 맨 앞장에 선 제4작업반원들의 이악하고 성실한 일본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였다. 이들은 흙보산비료와 구운흙생산에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말장을 마련하기 위한 전투에서도 련일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들만이 아니다. 혁신의 새 소식은 제1, 2작업반의 전투현장들에서도 전해졌다.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한해농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중소농기구들을 그쯘히 마련해놓은 이곳 작업반원들은 말장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서도 앞자리를 양보할수 없다고 하면서 하루과제를 수행하고도 전투장을 떠나지 않았다.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는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오늘의 하루하루를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려는 불타는 결의가 어려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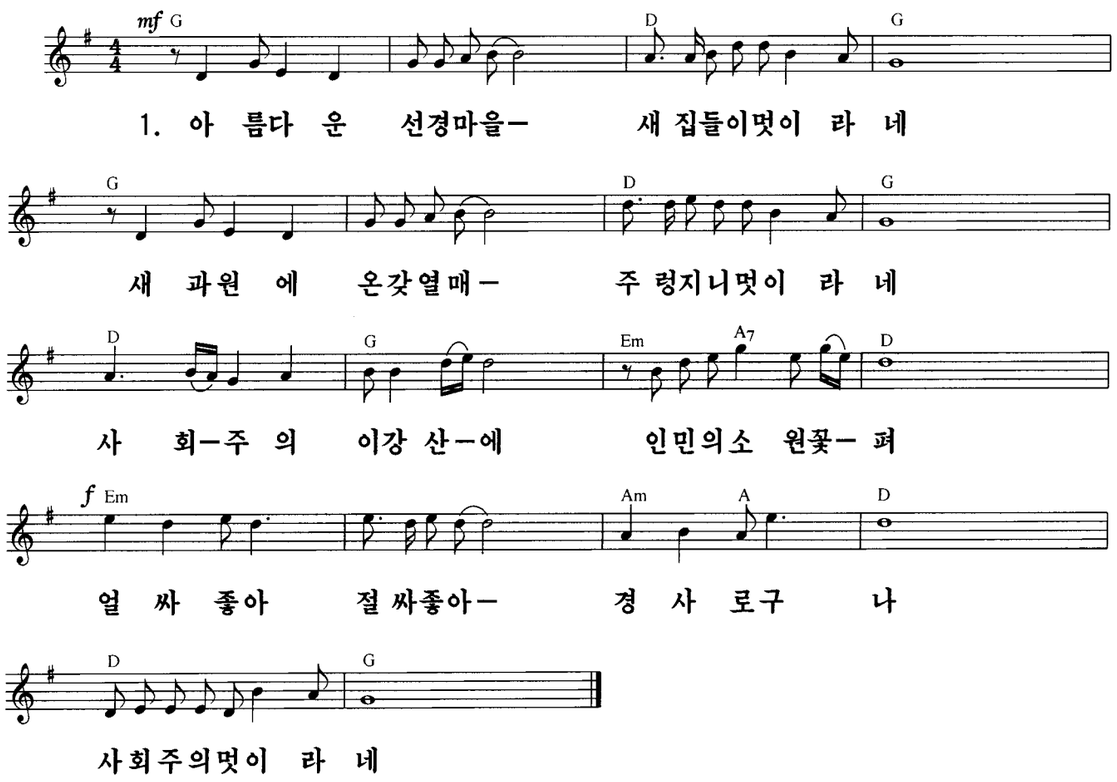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작업반들에서는 며칠 안되는 짧은 기간에 계획했던 모판자재준비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홍성철

사 회 주 의 멋 이 라 네

작사 류동호
작곡 오문선

흥취나게 (♩= 125)



2. 비날론이 폭포치며 쏟아지니 멋이라네
주체철의 불노을이 타오르니 멋이라네
사회주의 내 나라에 만복이 넘쳐나니
얼싸 좋아 절싸 좋아 잘살 날 오네
사회주의 멋이라네

3. 장군님이 가꿔주신 무릉도원 멋이라네
수령님의 평생념원 꽃피는 땅 멋이라네
사회주의강성대국 이 땅에 우뚝 솟아
얼싸 좋아 절싸 좋아 승리가 오네
사회주의 멋이라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가는 열정

평양방직공장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２０１０년을 인민생활향상의 해로 정한 당의 결심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일터마다 끓고 사람마다 뛴다.

시대의 벅찬 숨결을 안고 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경공업전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특히 생산의 전초선을 지켜선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다.

자기 한몸, 자기 가정보다 당이 준 과업을 먼저 생각하며 분과 초를 다투면서 일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 실적앞에 자기 량심을 비추어보며 증산돌격투쟁의 기수로 살기 위해 분발하는 이들의 가슴속에는 과연 무엇이 간직되여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이른아침 새해 첫 전투로 들끓는 현장에 들어선 초급당비서 박혜옥동무는 그만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 기대에서나 마치 약속한듯이 두명의 기대공들이 나란히 함께 일하고있었던것이다. 다음교대를 위하여 자기 교대시간이 지나도록 땀흘려 일하는 로동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마음은 뜨거워졌다.

그들속에는 오랜 기능공들과 함께 중학교를 갓 졸업한 처녀들도 있었다.

나이는 비록 어려도 일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혁신자들, 그런 훌륭한 처녀들이 바로 우리 당의 뜻을 받들어 인민의 행복을 필필이 엮을 실을 생산하고있는것이다.

—경공업의 최전선에 우리가 섰다!

이것은 속보의 글발이기 전에 먼저 로동자들의 가슴에 새겨진 불같은 각오였다. 직장일군으로부터 신입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전투원이였다.

누구나 그러하지만 준비직장의 로동자들은 여느때없이 바쁘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은 그들에 대한 권사공들의 《성화》가 여간 아니다.

《우리가 거부기가 되는가, 준마가 되는가 하는것은 준비직장동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미더운 그들에게 보내는 준비직장 로동자들의 대답인듯 현장에 큼직한 속보가 나붙었다.

—《탄약》은 념려말라!

준비직장 로동자들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내주던 후방인민들의 마음으로 기대를 돌렸다. 그들속에는 식사시간마저 아껴가면서 일손을 다그친 작업반장 김영미동무도 있다.

어린 자식을 가진 가정주부이지만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보답할 일념으로 낮이나 밤이나 더 많은 실을 뽑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녀성, 그런 훌륭한 녀성로동자가 어찌 김영미동무뿐이랴.

１９７０년대 공장의 《애기어머니작업반》의 전체 작업반원들은 누구보다도 선참으로 ２중천리마작업반의 영예를 지녔다고, 우리도 그들처럼 살수있게 해달라고 절절히 말하며 휴식을 마다했다던 직장의 애기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을 울려주는가.

산에서 싸울 때 천이 없어서 애타던 일이 생각난다고, 하루빨리 현대적인 방직공장이 일떠서서 고운 비단천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것을 보았으면 평생소원이 풀릴것 같다고 하시던 백두산녀장군의 말씀을 언제나 심장속에 간직하고 사는 그들이기에 １００%는 성차하지 않는다.

계획초과완수자들의 대부분은 처녀들이다.

우리의 힘으로 방직공장을 큼직하게 지어서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좋은 옷을 해입도록 하자고 하시며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에 몸소 진창길을 걸으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터전까지 잡아주신 공장, 지난해 ７월의 폭양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수령님 오셨던 그 길을 따라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발포기념일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공장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뗀 처녀들이여서 보답의 마음그리도 뜨거운것인가.

지금도 우리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는 현장에서 만났던 열정적이고 순박한 이악쟁이처녀들의 모습을 잊을수 없다.

잠시도 기대곁을 떠날수 없다고, 자기 자랑에 앞서 생산을 먼저 생각하던 정방공 한철옥, 한영옥동무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한날한시에 공장에 뿌리를 내린 자매혁신자들이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기대에 손이 붙을 때까지 수없이 동작을 반복해보며 현장에서 새날을 맞군 했다는 권사공 리봉옥, 리명순동무들은 나이많은 기능공들도 혀를 내두르는 번개같은 일솜씨를 가진 처녀들이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집안의 막내로 어머니의 품속에서 응석을 부려왔다는 권사공 전춘복동무는 어느때가 제일 기쁜가고 묻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다른 동무들보다 생산을 더 많이 하였을 때입니다.》

４대의 정방기를 혼자서 맡아보는 처녀정방공 유향미동무는 당창건기념일전에 년간계획을 끝내려는 자기의 결심을 신심에 넘쳐 터놓았다.

소박한 목소리, 가식없는 행동들에서 우리는 위훈으로 날과 달을 수놓아가며 자나깨나 뵙고싶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일터에 다시 모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방직공장로동계급의 간절한 소원을 읽었다.

그 절절한 마음을 안고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 로동계급은 ２월계획도 공장적으로 제일먼저 완수하였다.

거기에는 행복도 기쁨도 더 많은 실을 뽑는데서 찾으며 가정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생산에 바치며 일해온 하금청, 정명실동무들을 비롯한 수많은 부부혁신자들, 생산을 함께 책임진 주인이 되여 늘 기대곁을 떠나지 않으며 정방기들의 만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한 수리공 은명호, 공정기사 한창일동무를 비롯한 수리직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의 애국의 자욱도 비껴있다.

또한 대오의 기수가 되여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는 송풍기로 살고있는 장철호, 김명준, 김영실, 로일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헌신의 자욱도 스며있다.

그들의 가슴은 비날론솜폭포를 비날론천폭포로 이어놓음으로써 １０월의 경축광장에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떳떳하게 들어설 각오로 불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꽃피우는데서 삶의 보람과 영예를 찾는 화학섬유방적종합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오늘도 그들은 자기 옷감을 짜는 심정으로 오리오리 행복의 실을 뽑는다. 소리치며 잘살 날을 앞당겨 기쁨의 실을 쌓아간다.

본사기자 조 향 선

비무장지대의 안전질서를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될수 없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담화

최근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있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는 남조선군부당국자들에 의해 전쟁접경의 현정세를 더욱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갈수 있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２월 중순부터 비무장지대에 심리전요원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여 《견학》이요, 《참관》이요, 《관망》이요 하며 벌리는 반공화국심리전행위이다.

이미 남조선군부가 １５개의 《언론》기관들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취재지원을 위한 량해각서》라는것을 체결하고 그들을 비무장지대는 물론 그와 린접한 전연일대에 끌어들여 반북모략자료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신문, 방송, 인터네트 등을 통하여 보도하기로 작정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세상에 공포된바와 같이 정전협정 제１조 ９항에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갈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미국의 고의적인 정전파괴책동으로 군사정전위원회가 완전히 조락되고 그를 대신하여 정전협정리행을 감독통제할수 있는 쌍방군사기구조차 근 ２０년동안 존재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에 하등의 관계없는 인원들이 제멋대로 비무장지대에 출입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이 모든 움직임은 정전협정은 안중에도 없이 비무장지대를 반공화국대결장, 대북심리전장으로 만들고 조선반도의 전반정세를 긴장시키려는 고의적인 행위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정전협정체결당사자는 다름아닌 미국이며 그 리행을 책임진 일방도 미국측이다.

따라서 비무장지대를 저들의 불순한 목적에 악용하려는 남조선군당국의 책동을 저지시킬 책임도 미국측에 있다.

지금까지 형식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비무장지대의 안전질서가 파괴되고 이 지대가 정전협정과 배치되게 완전한 무장지대, 북남대결장, 대북심리전마당으로 전변되고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해 미국측은 응당 심사숙고해야 한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힌다.

１. 미국측이 정전협정조인당사자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비무장지대의 안전질서를 파괴하려는 남조선당국과 군부호전광들의 책동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２.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우리 군대의 예상할수 없는 불벼락을 면하려거든 비무장지대를 반공화국대결장으로, 대북심리전장으로 만들려는 어리석은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푼수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３.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지대를 북남대결에 악용하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 지대에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예측할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측이 지게 될것이다.

비무장지대의 안전질서를 파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될수 없다.

주체９９ (２０１０) 년 ３월 ２９일
판 문 점

사랑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모습

묘향지도국 로동자 배상복동무

그는 평범하고 소박한 처녀였다. 영예군인을 위해 한두해도 아닌 １０여년간 어떻게 그토록 지성을 기울일수 있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배상복동무는 붉어지는 얼굴을 더 깊이 숙일뿐이였다.

다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힘겨울 때가 많았을것이라는 그 말에만은 서둘러 대답하는것이였다.

오히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영예군인할아버지를 찾군 했다고, 그러면 막 새 힘이 솟군 하였다고…

단발머리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예군인은 그에게 있어서 혁명선배이기전에 다심하고도 엄격한 친할아버지였고 스승이였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는것은 총대로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풍입니다.》

１０여년전 어느 봄날 만경대구역 팔골１동에 사는 김형섭영예군인의 집을 나선 배상복동무는 깊은 생각에 잠겨 밤거리를 걸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도 배움의 꽃대문에 들어서던 시절부터 사회로 갓 진출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예군인들과 그들의 친혈육이 되여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처럼 들으며 자란 세대였다.

그런 그가 오늘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되는 첫걸음을 걸었던것이다.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도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는 영예군인할아버지! 내 그의 친자식이 되리라.)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바치고싶어 남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는 그에게 늘 모자라는것이 시간이였다.

그런 속에서도 영예군인할아버지에게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 언제 한번 드틴적이 없었다. 로동의 보람과 누리는 행복으로 생활이 즐거울수록 그 밑뿌리에 바로 전세대들이 흘린 피가 스며있음을 새삼스럽게 자각하였기에.

따로 정해진 날이 없었다. 휴식일과 명절날은 물론 새로 나온 소설책이 하나 생겨도, 귀한 약재나 생활용품이 하나 생겨도 그는 광복거리로 향하군 하였다.

박영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도 그를 적극 도와주고 떠밀어주었다.

그 나날 로인부부의 생일상과 두 아들의 결혼상을 비롯하여 이들의 가정과 생활의 구석구석에 비낀 배상복동무의 헌신의 마음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말할수 있으랴.

허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할아버지가 들려주군 하는 군사복무의 나날에 대한 이야기에서, 오늘도 병사의 자세로 당을 받들어가는 전세대들의 숭고한 넋에서 저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얻고있습니다.》

그 정신적량식을 자양분으로 하였기에 배상복동무는 오늘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혁신자로, 청년동맹 모범초급일군으로 성장하였다.

그는 오늘도 혁명선배들의 고귀한 넋을 이어 선군시대 새세대의 본분과 의무를 다해가는 헌신의 길, 보답의 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남호

적들이 덤벼든다면 천백배로 복수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는 청년학생들
—중구역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로농통신원들이 보내온 소식

유선탄광 공무직장 작업반장 정재선동무는 일 잘하기로 소문난 로력혁신자이다.

３５년동안 선반을 다루며 묵묵히 헌신의 자욱을 새겨온 그는 얼마전 어렵다고 하던 대형기계의 부속품가공을 종전의 기준을 뛰여넘어 높은 수준에서 짧은 시간안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작업반원들모두가 혁명적대고조의 승리를 위한 돌격전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로농통신원 박인서

신의주신발공장 리정희, 리성금, 리선영동무들은 일 잘하기로 소문난 운전공들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프레스직장의 운전공으로 배치된 그들은 영광의 기대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기술기능을 부단히 높여 신발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가고있다. 특히 설비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설비리용률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지난해 년간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로농통신원 김성식

뜨 거 운 애 국 심 을 안 고

혜산신발공장 1재봉직장 로동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나라의 경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３월이라고 해도 혜산의 날씨는 여전히 추웠다. 하지만 밤늦게 또다시 공장을 향해 종종걸음을 다그치는 혜산신발공장 １재봉직장 직장장 전순녀동무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전 자기 집으로 뛰여왔던 １작업반 남충실동무의 기쁨넘친 모습이 자꾸만 얼른거렸다.

《직장장동지, 이것 보십시오. 끝내… 끝내 이 공정을 완전히 손에 익혔습니다.》하면서 가공품을 높이 들어보이던 충실동무,

《어디 보자, 어디… 우리 충실동무가 정말 용쿠만.》

전순녀동무는 남충실동무를 꼭 안아주었다. 충혈진 두눈이며 물집터진 손가락들이 눈시울적시며 안겨들었다.

얼마나 노력했으면, 또 얼마나 기뻤으면 이 한밤중에 여기까지 달려왔으랴.

쉬고 가라고 만류했지만 또다시 어둠속을 뚫고 공장으로 달려가던 충실동무,

전순녀동무는 얼른 밥곽을 싸들고 뒤따라 집문을 나섰다. 아직도 기대곁을 떠나지 않고 신발생산에 여념이 없을 직장동무들의 정다운 모습이 뜨겁게 새겨졌다. 그의 가슴속에 추억의 물결이 조용히 파도쳐왔다.

지난해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텔레비죤화면으로 뵈온 그들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려는것이 변함없는 당의 구상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올해를 기술혁신의 해로 정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질제고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에게 가볍고 맵시있는 구두를 더 많이 보내주자고 뜨겁게 가르쳐주시던 어버이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혜산신발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가슴속에도 깊이 새겨졌다.

신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이 공장에 휘몰아쳤다.

직장장 전순녀동무를 비롯한 １재봉직장의 생산자들이 앞장에 섰다.

매 로동자들이 어느 한 공정씩 전문적으로 맡아 흐름식으로 생산을 진행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직장에서는 로동자들이 자기가 맡은 공정외에 ２가지 공정을 더 배우고 손에 완전히 익히도록 하기 위해 고급기능공들이 아직 기능이 어린 동무들을 한명씩 맡아 배워주도록 하였다.

그때 리정화동무는 남충실동무를 맡게 되였다. 눈썰미가 있고 이악한 남충실동무는 리정화동무에게서 열심히 배우며 기능을 익혀나갔다. 그런데 봉조기를 다루는 일에서 그는 그만 주저앉고말았다.

쉽지 않은 공정인것만은 사실이였다.

어느날 퇴근시간에 작업장을 돌아보던 전순녀동무는 리정화동무의 격한 목소리를 듣게 되였다.

《질이자 애국심이라고 말로만 백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동무가 만든 그 신발을 자기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신는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힘들다고 주저앉겠어?》

그날부터 남충실동무는 낮이나 밤이나 봉조기앞을 떠나지 않았다.

손가락들에 물집이 터져 붕대를 감고서도 그는 열심히 봉조공정을 손에 익혀나갔다. 충실동무만이 아니였다.

직장안의 모든 동무들이 맡은 공정과 ２가지이상의 공정들을 완전히 손에 익히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었다.

신발의 질이 훨씬 개선되고 주민들의 호평이 자자해질수록 이들의 열정은 더욱 불같아졌다.

전순녀동무는 충실동무의 열정적인 모습을 그려보며 품안에 다시 손을 넣어보았다.

밥곽은 여전히 따끈했다.

직장장은 지금 이 시각도 질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여 도내인민들에게 안겨주어 ２０１０년을 인민생활향상의 해로 정한 우리 당의 결심이 어떻게 현실로 꽃펴나는가를 보여줄 불타는 일념안고 떨쳐나선 직장로동자들의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마음을 느끼며 걸음을 다우쳤다.

본사기자 장은영

독자의 편지 《화목한 대가정에서 내가 삽니다》

저는 벽동군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입니다.

불비쏟아지는 전투장에서 원쑤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히던 그때를 돌이켜보며 오늘도 청춘의 패기와 열정으로 시대의 벅찬 흐름속에 뛰여들고싶은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마음뿐이지 나이도 많은 제가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인민반주민들은 늘 저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습니다.

조국보위초소에서 영예롭게 전사한 아들의 몫까지 한다고 말입니다.

언제인가 제가 앓고있다는것을 안 인민반장이 많은 식료품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야 돈이 없으면 키워준 부모와 조국도 서슴없이 버리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저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 질세라 따뜻이 보살펴주는 그들을 대할 때마다 고마움의 말보다 눈물이 먼저 앞서는 저입니다.

우리 사회의 참모습을 매일, 매 시각 느끼며 저는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사회주의대가정의 식솔이 된 긍지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싶습니다.

벽동군 읍 ７１인민반
리 병 조

반공화국대결에서 얻을것이란 파멸뿐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북남관계를 전면적인 파국에로 몰아가고 긴장상태격화와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행위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와 계속 엇서고 끝까지 대결하며 지어 전쟁까지도 불사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얼마전 괴뢰군부우두머리들앞에서 그 무슨 《북의 도발》을 운운하며 그에 대처한 《만전의 대비태세확립》에 대해 떠들었다. 괴뢰국방부 장관 김태영역도도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폭언을 련발하면서 괴뢰군부대들에 있을수 있는 《급변사태》에 《철저히 대비》할데 대한 지령을 떨구는 등의 소동을 피우고있다. 최근 《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이 해외에 나가 마치도 우리때문에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있는듯이 사태를 오도하는 한편 그 무슨 《그릇된 접근방식》이니 뭐니 하며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주장을 악랄하게 헐뜯은것도 고약하기 그지없다.

보수패당의 이러한 분별없는 망동들은 철두철미 미제의 대조선침략정책에 따른것으로서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과정에 훼방을 놓으며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다가 일단 기회만 조성되면 미제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쳐놓으려는 범죄적야망으로부터 출발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이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괴뢰패당이 있지도 않는 북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광고하면서 《만전의 대비태세확립》과 《선제타격》폭언을 거리낌없이 줴치는것은 그들의 동족대결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서 발악적으로 벌어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의 침략위협은 미제의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대규모의 전쟁연습들이 그칠새없이 벌어지는 군사련병장으로 화한 남조선에서부터 북으로 오고있다. 사실상 우리는 항시적으로 침략위협을 당하고있다. 괴뢰들이 미제와 함께 최근에 감행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우리 인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닥쳤던 사실은 그 가까운 실례이다. 폭로된것처럼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말이 군사연습일뿐 실지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기습공격을 노린 립체적인 핵시험전쟁이였다. 이번의 전쟁불장난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조선반도의 정세는 언제 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를 위험상태에 처하였었다. 그것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실전으로 번져지지 않은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강위력한 자위적억제력의 덕이였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이 판에 박힌 북의 《도발》과 《위협》을 계속 광고하고있으니 그래 이것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도발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측 지역에 반공화국삐라들을 대량살포하면서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모독하고 헐뜯는 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며 이른바 《비상통치계획》이라는 북침모략각본을 꾸며내는것으로도 모자라 미국상전과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공조방안》까지 모의하려 하는것 등은 북침의 불을 지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호전광들에게만 고유한 행동이다.

북침야망에 들떠 리성마저 잃고 전쟁의 불구름을 질게 몰아오는자들이 광고하는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타령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넉두리는 도리여 한 쪼각의 민족적량심도, 인간으로서의 리성도 없이 오직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 범죄적야망에만 미쳐돌아가는 괴뢰들의 더러운 정체만을 드러내보일뿐이다.

괴뢰들이 그 무슨 《그릇된 접근방식》이니 뭐니 하면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인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주장을 헐뜯고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있는 책임이 마치도 우리에게 있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도 골수에 배긴 반공화국적대의식의 집중적발로이다.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은 핵문제해결의 필수적조건이며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실현의 선결조건이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주장은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

괴뢰들이 주제넘게도 《그릇된 접근방식》이니, 《비핵화를 포기하기 위한것》이니 뭐니 하며 그것을 터무니없이 시비중상하고있는것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

지금 괴뢰보수패당은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리면서 《북핵공조》를 구걸하는 쓸개빠진짓을 하고있다. 그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방해하자는데 있다. 보수패당이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는 한 북과 《그 어떤 관계도 가지지 말아달라.》고 미국상전에게 청탁하는것이나 《원칙고수》론을 내돌리며 이전 《정권》시기에 나온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뜯어고치는것으로 북남관계의 문을 꽁꽁 닫아매는것 그리고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정책 아닌 《정책》을 한사코 고수하겠다고 너덜대는것도 그러한 방해책동의 일환이다.

남조선보수패당에게 우리와의 관계개선의사가 털끝만큼도 없으며 오직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의 체제를 《전복》할 흉심만 있다는것은 더없이 명백해졌다.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 도전하여 변함없이 대결과 전쟁의 궤도로만 질주하는 괴뢰들의 흉악한 정체는 세계의 면전에 낱낱이 드러났다.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은 결코 량립될수 없다. 북남사이의 대결과 불신이 긴장격화를 낳고 긴장격화가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은 일반의 상식이다. 괴뢰들이 이것을 모를리 없다.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죽기내기로 매달리고있는 바로 여기에 호전광들의 본색이 있고 간과할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것이다. 전례없이 악랄한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전면파괴하고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차단하며 나아가서 미제와 작당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공을 기어이 강행해보려는 괴뢰들의 범죄적야심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와 엇서고 대결하는데서 괴뢰호전광들이 얻을것이란 수치스러운 파멸밖에 없다.

불은 불로, 북침전쟁기도는 선군의 철퇴로 다스리는것이 우리의 기질이며 본때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우리는 민족의 머리우에 외세의 핵전쟁불구름을 몰아오는 괴뢰호전광들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으며 그들이 그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할것이다.

엄 일 규

출판보도선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련의 기자, 언론인들 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전국기자, 언론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서한 《기자, 언론인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군나팔수이다》를 높이 받들고 출판보도선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총련의 기자, 언론인들의 모임이 23일 도꾜에 있는 조선출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고덕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강두환 선전광보국 국장, 박일 조선신보사 사장, 양인원 조선통신사 사장, 하태홍 학우서방 사장을 비롯한 총련의 출판보도부문 일군들과 기자, 언론인들, 총련본부, 중앙단체, 사업체의 선전광보담당 일군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모임에서는 고덕우 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력사적서한은 출판보도선전일군들을 비롯한 총련일군들모두가 지침으로 삼고 결사관철하여야 할 필승의 보검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오늘 총련의 보도선전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세를 벌리고있는 조국인민들과 함께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해나가는데 모든것을 철저히 복종시키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총련의 전체 기자, 언론인들이 붓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며 실력으로 장군님을 받드는 만능의 문필가가 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총련의 기자, 언론인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기자들과 보조를 맞추어 출판보도선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총련 제22차 전체대회를 새 전성기개척의 돌파구를 열어놓는 승리와 단결의 대회, 계승과 혁신의 대회로 장식하는데서 진군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담당수행해나가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모임은 《김정일장군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요구

일본 교또의 문화인들이 재일조선학교를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말며 선거공약을 지킬데 대한 요망서를 수상과 문부과학상에게 보내였다.

교또대학 명예교수 우에다 마사아끼 등 13명이 련명으로 제출한 요망서는 재일조선학교를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국제적관점으로 보나 평등의 원칙으로 보나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요망서는 재일조선학교의 교육과정안은 학습지도요령에 준하고있으며 학교에서는 행정관계자나 시민들의 견학도 허용하고있기때문에 문제될것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지원문제를 우리 나라와의 관계문제와 결부시키는데 대해 비난하면서 요망서는 이것은 정치, 외교와 교육을 혼탕시키는것이라고 까밝혔다.

본사기자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에 나설것을 요구

남조선의 《청년련대》가 22일 성명을 발표하여 괴뢰당국이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은 현 《정부》가 그 무슨 《진상규명》이니, 《신변안전보장》이니 하며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가로막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당국이 집권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였으며 이로 하여 북과의 교류, 협력사업은 가로막힌 상태에 놓여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그동안 북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남북관계가 개선될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남과 북의 화해협력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이제 관광길이 열리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는 북의 주장에 《정부》가 책임적으로 대답할때가 왔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금강산, 개성지구관광까지 가로막는다면 반통일《정부》라는 오명을 벗는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하였다.

단체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각계각층과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 10.4선언리행을 위해 노력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정부》가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에 하루빨리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단평 대결집단의 《앵무새》

얼마전 남조선《통일부》 차관자리에 새로 올라앉은 엄종식이라는자가 《취임식》에서 실로 고약한 망발을 줴쳐댔다. 이날 이자는 《긴 호흡》이니, 《여유》니 하는따위의 느려빠진 표현을 곱씹으면서 그것으로 《남북관계에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넉두리를 늘어놓았다. 그래야만 《통일이라는 긴 려정》을 갈수 있다는것이다. 표현만 다를뿐이지 《기다리는것도 전략》이니, 《우보천리》니 하는 상전들의 수작질과 본질상 꼭같다. 앵무새 한가지이다.

그 단지에 그 뚜껑이라고 반통일대결집단인 《실용정권》의 수급졸개에게서 다른 소리가 나올리 만무한것이다.

이자의 넉두리는 최악의 위기에 빠진 북남관계를 계속 지속시키며 대결과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겠다는것외 다른것이 아니다. 민족의 중대사를 놓고 손을 맞잡고 습보로 달려도 성차지 않은데 오히려 《여유》니 뭐니 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얼빠진 수작인가. 시작부터가 틀렸다.

이자가 차관감투를 쓰자마자 기고만장하여 대결본색을 말짱 드러내는것만 보아도 집권자의 둘도 없는 노복이 틀림없다. 이미 지난 기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청와대 통일비서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등을 해먹으면서 현 집권자의 《대북정책기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인물이고보면 《통일부》가 변함없이 추구하는것이 《비핵, 개방, 3 000》이며 궁극적목표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이런자들에게서 북남관계의 개선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이번에 엄종식이 대신집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세치 혀를 가볍게 놀리며 까불어댔는데 그 대가가 얼마나 비싼가 하는것은 시간이 증명해줄것이다.

허 영 민

거듭되는 《법치》간판, 늘어나는 범죄

남조선에서 녀성들에 대한 범죄행위가 더욱 성행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얼마전 부산에서 한 범죄자가 녀중학생을 릉욕한 끝에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악을 금할수 없는것은 사건당시 살인범은 바로 경찰의 코앞에서 제할짓을 다하고 여유작작하게 달아난것이다. 뒤늦게 범죄추적에 나선 경찰당국은 사건이 발생한지 14일만에야 겨우 살인혐의자를 붙들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한심한 실태가 부각되면서 남조선사회가 또다시 죽가마끓듯 하고있다.

비난의 화살이 현 집권세력과 경찰당국에 집중되고있다. 남조선각계는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여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에만 몰두하면서 눈앞에 있는 살인범까지 놓쳐버렸으니 《민생치안에 통구멍이 생겼다.》고 맹비난을 퍼붓고있다. 남조선당국자가 집권초기부터 그 무슨 《법치》에 대해 입버릇처럼 떠들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간판이 범죄를 얼마라도 막아주었는가. 절대로 아니다.

얼마전에 발간된 《2009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지금 남조선에서는 매일 40여건의 성폭행범죄사건이 발생하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35분만에 한건의 성폭행사건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에서의 이러한 범죄건수는 이전에 비해 2배이상이나 껑충 뛰여올라 세계적으로 강간건수가 제일 많다고 하는 미국의 뉴욕을 훨씬 릉가할 정도라고 한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이러한 성폭행범죄실태가 밝혀진것보다 숨겨진것이 비할바없이 많다는 사실이다. 조사된데 의하면 성폭행을 당한 녀성들속에서 보복이나 망신 등 후과가 두려워 진실을 숨기고있는 피해자가 90%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이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는것으로 하여 녀성들은 성폭행을 당하고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형편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CBS》방송이 《이제 전자발진기는 성폭행예방의 필수품이 됐고 엄마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고 등하교길을 감시하고있다.》고 개탄하였겠는가.

이렇듯 녀성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는 속에서 이번 녀중학생성폭행살해사건이 발생한것이다. 보수당국이 그토록 떠드는 《법치》의 간판을 통해 들여다보게 되는 남조선의 현실태의 일단이라고 할수 있다.

하다면 보수당국이 지금까지 《법치》의 간판을 걸고 한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백골단》과 같은 군부독재시대의 폭압기구들과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실적에 따라 상금을 주는 등 파쑈폭압제도를 죄다 되살리고 파쑈화책동을 강화한것뿐이다.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요구하여 시위투쟁에 나섰다는 리유로 녀성들이 경찰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유모차를 끄는 애기어머니들에게까지 무지스러운 폭행과 박해를 가한 사실도 현 파쑈당국의 집권하에서만 볼수 있는 일이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보수패당의 폭압정치는 녀성들의 권리를 존중하는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반인민적정치이다. 《법치》의 간판은 그것을 가리우고 정당화하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악정하에서 녀성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될리 만무하다.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이런 끔찍한 강력범죄에 대처하는 반동통치배들의 립장과 태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당한 책임을 지고 녀성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할 남조선당국은 과연 어떻게 놀아대고있는가. 지금 보수집권세력은 철면피하게도 이번 녀중학생성폭행살인사건을 《좌파세력》과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저들에게 날아오는 분노의 화살을 피해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심지어 이자들속에서는 진보세력을 대상으로 《사형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무지막지한 폭언도 서슴없이 튀여나오고있다.

보수패당의 반역정치는 남조선녀성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들씌우고 그들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더욱 몰아넣고있다.

현실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이 집권하고있는 한 온 남녘땅이 범죄의 서식장으로 되는것을 막을수 없으며 녀성들이 진정 사람답게 살자고 해도 반역정치를 끝장내야 한다는것을 더욱 뼈저리게 깨닫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준

전쟁열을 고취하는 광대놀음

치욕의 과거를 잊어버리는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력사의 비극을 재현하려는것은 더욱 황당하고 부질없는짓이다. 그것이 곧 또 다른 비극의 시작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왕왕 이것을 잊고 스스로 치욕의 수렁창에 머리를 들이미는자들이 있다.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바로 그렇다.

얼마전 괴뢰국방부는 오는 9월에 대규모의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라는것을 벌릴것이라고 공포하였다. 그에 따르면 호전광들은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인천상륙작전 60년이 되는 9월 15일을 계기로 인천시에서 그 무슨 《기념전야제》니, 상륙작전재현이니, 《기념공연》이니, 《사진전시회》니 하는따위의 놀음들을 벌리려 하고있다.

괴뢰해군본부와 인천시가 주관하는 이 전쟁굿판에서도 특히 경악을 자아내는것은 60년만에 재현될 인천상륙작전놀음이다. 미제의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침략군괴수 맥아더의 동상에 머리를 조아리는 추태로 시작될 재현소동에서 호전광들은 당시 미해적들의 기본침공로였던 월미도앞바다를 무대로 대대적인 상륙작전놀음을 벌릴것이라고 한다. 때를 같이하여 인천시로 통하는 기본도로에서 남조선괴뢰군과 미해군 및 해병대와 60년전의 침략군고용병잔당들이 참가하는 《시가행진》이라는것도 벌리려 하고있다.

단순히 전쟁현훈증에 들뜬 호전광들의 해괴한 광대극으로만 스칠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8년에도 괴뢰군부는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월미도앞바다에서 이와 류사한 군사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린바 있다. 대형수송함과 상륙함, 수십대의 직승기와 수륙량용장갑차, 해병대와 륙군, 해군을 포함한 방대한 병력이 투입되여 감행된 이 전쟁연습소동을 두고 군부호전광들은 《해병대의 위용》이니 뭐니 하며 짙은 화약내를 풍기였었다.

그것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것과 동시에 북침선제공격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도발적인 기습작전연습이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해병대가 상대방의 해안에 대한 상륙작전을 기본으로 하는 무력으로서 공격작전의 선견대라는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은 해병대무력을 강화하고 그의 상륙작전능력을 제고하여 《유사시》 북침선제공격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려고 꾀하여왔다. 이것이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각종 명목으로 벌어진 해병대상륙작전연습의 주되는 목적이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조선전쟁발발 60년을 계기로 벌어지게 될 이번의 광대놀음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다음의 사실들을 놓고 말해보자.

호전광들은 지금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조선전쟁발발 60년을 《기념》하는 형형색색의 전쟁광대극들을 연출하려 하고있다.

락동강을 끼고있는 경상도에서는 《민, 관, 군》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기념식》이 추진되고있다. 6월 25일 당일에는 전쟁흔적이 력력한 락동강변에서 당시의 침략군고용병들의 참가하에 《특공무술시범》, 《고공락하》, 《전시와 기아, 난민체험》, 《유해발굴사진전시》 등이 벌어질것이라고 한다. 특히 락동강반의 주요전투장들에서는 250명의 괴뢰군특공대와 포병무력이 투입되여 당시의 살벌한 전투상황을 재현하는 군사연습소동이 준비되고있다.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3일동안 포항과 경주, 영천, 왜관, 락동강에 이르는 240㎞구간에서 《6.25를 되새기며 달리》는 《락동강전선종주마라손대회》라는 듣기에도 피상망측한 광대놀음이 벌어지게 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실시될 《락동강탐방 및 병영체험》이라는것은 그 기도에 있어서 매우 위험천만한것이다. 괴뢰당국은 이에 대하여 《6.25전쟁에 대한 옳바른 정립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비린청을 돋구고있다. 특히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고취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보수패당의 망발은 참으로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기념행사》의 명목밑에 남조선의 청소년들에게 철저한 동족대결관, 북침전쟁의식을 주입시켜 제2의 조선전쟁의 총알받이들로 만들려는것이 호전광들의 범죄적흉계이다.

사실들은 남조선에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6.25관련 광대극들이 의심할바 없는 제2의 조선전쟁의 전주곡임을 립증해주고있다. 또한 호전광들이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보장체제에로 전환할데 대한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리고 그와는 정반대의 전쟁체제에로 급속히 이행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괴뢰호전광들이 침략자와 한짝이 되여 조국강토를 불바다로 만들고 우리 겨레에게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죄악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그것을 그 무슨 명절처럼 광고하면서 6.25의 망령을 되살리고있으니 이런 히스테리적망동을 우리 민족은 일찌기 알지 못한다.

과거는 현재를 위한 거울이다. 지난날의 치욕에서 오늘의 교훈을 찾으라는 소리이다. 이것을 모르는데 바로 현 남조선통치배들의 비극이 있다.

지난 세기 50년대의 6.25뒤에는 7.27이 있었다. 이 력사의 순리, 침략전쟁에 대한 정의의 혁명전쟁의 승리의 합법칙성은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함이 없고 되돌릴수도 없다.

본사기자 리 효 진

로조설립방해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부대변인이 청년로조설립을 가로막은 괴뢰당국의 비렬한 조치를 규탄하여 23일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로동부》가 《조합원중 취업자보다 구직자가 많다.》느니, 단체강령이 《정치적색채를 띤다.》느니 뭐니 하며 청년로조설립신고를 반대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거의 모든 로동조합들의 규약에도 포함되여있는 내용을 문제시하며 청년로조설립을 반대한것은 부당하다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더우기 졸업이 곧 실업으로 되여 장기간의 구직기간을 거치는것이 당연한것으로 되고있는 현 실태를 놓고볼 때 청년로조에 구직자가 많은것은 반대리유로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론평은 현 《정권》이 생존권실현을 위한 청년들의 정당한 로조활동을 가로막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로동부》가 근거없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청년로조설립신고를 받아들일것을 론평은 요구하였다.

《한대련》 이전 의장에 대한 폭압조치

23일 남조선의 서울 종로경찰서가 현 당국자의 독도관련망언을 규탄하여 기습시위를 벌리다가 체포된 《한대련》 전 의장 강민욱에 대한 구속령장을 청구하였다.

파쑈경찰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 초불집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그에게 이러한 폭압조치를 취하였다 한다.

본사기자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실용》독재의 2년(11)

화해와 협력의 길을 가로막은 반역집단

북남사이의 래왕을 적극 실현하고 협력과 교류를 다그치는것은 끊어진 민족의 뉴대를 잇고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풀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6.15이후 활력있게 진행되여오던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는 현 남조선보수당국의 출현과 함께 엄중한 장애에 부딪치고 북남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하였다. 지난 2년동안 남조선보수패당은 북남래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의 길에 차단봉을 내리고 북남관계를 격폐상태에로 몰아감으로써 극악한 반통일집단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집권전부터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북남협력사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그에 각방으로 제동을 걸어온 보수패당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바람으로 이전 《정권》들에서 북과 협력을 진행했지만 《북은 변하지 않았다.》느니, 《협력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고 고아대면서 그것을 공공연히 반대해나섰다.

어떻게 하나 북남협력사업을 파탄시키려는 반역무리들의 흉심은 그들이 반민족적인 《실용주의》와 《비핵, 개방, 3 000》따위의 동족대결론을 내들고 그에 따라 북남협력의 문을 닫아매는데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장사치의 너절한 속물적근성이 체질화된 반통일분자들은 동족사이의 협력문제를 수판알로 튀기고 저울질하면서 력사적인 10.4선언의 경제협력조항을 《경제협력으로 위장된 퍼주기》라고 악랄하게 헐뜯다 못해 그 무슨 《국익》에 대해 떠들어대며 이른바 《대북경협4원칙》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북남협력을 철저히 《핵문제의 진전》과 《경제성》 등에 따라 진행하며 그것도 《우선 할것, 나중에 할것, 못할것》 등 3가지 부류로 갈라 처리한다는 《대북경협4원칙》이야말로 본질에 있어서 북남협력사업을 걷어치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사태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던 《10.4선언리행을 위한 대책팀》을 해산해버린 반역패당은 각계의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악화된다고 하여 《남쪽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교류를 하지 않으면 《바쁜것은 북이지 남이 아니다.》는 얼토당토않은 나발을 늘어놓으며 이미 진행되여오던 북남협력사업들을 파탄시키였다. 한편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제도를 헐뜯는 악랄한 반공화국도발소동으로 북남관계를 헤여나올수 없는 파국에 몰아넣고 그것을 구실로 협력과 교류의 대문을 더욱 꽁꽁 닫아맸다.

더우기 외세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공동제안국》으로 나선 보수패당의 추악한 망동으로 북남협력사업을 위한 공간마저 없어지게 되였다. 북남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파탄시킬 구실만 찾고있던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금강산에서 저들의 불찰로 《관광객사건》이 일어나자 오히려 제편에서 법석 떠들면서 《6.15의 옥동자》로 불리우며 내외의 관심속에 10년간이나 이어져오던 금강산관광은 물론 개성지구관광마저 중단시켜버렸다.

북남협력과 교류사업을 파탄시키는데 앞장선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통일부》 장관 현인택과 그 일당이다. 《통일부》패거리들은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의 동족과의 래왕과 접촉은 물론 민간단체들의 소소한 협력사업까지도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부당한 구실을 붙여 가로막았다. 극악한 대결광신자인 현인택역도는 북남협력과 교류를 완전히 파탄시킬 흉심밑에 북남협력과 교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기다리라.》,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곱씹으면서 이 사업을 외면하였으며 《상황고려》니, 《대규모방북은 적절하지 못하다.》느니 하는따위의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가며 통일운동단체들과 민간단체들의 공화국방문을 차단, 제한하는 방법으로 동족과의 래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았다. 또한 저들의 《대북정책》을 따르지 않고 북남협력사업에 관여한 단체들과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조사와 압력을 가하고 《지원금삭감》조치를 취함으로써 남조선민간단체들과 기업들이 우리와 이미 합의하였던 협력사업들을 부득불 포기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현인택패당이 지난해 온갖 구실을 내대며 500여건에 달하는 북남협력교류사업들을 파탄시키고 민간단체들에 눈곱자기만큼 주던 《남북협력기금》을 잘라버리거나 삭감한 반면에 5억 5 900만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을 떼내여 탕진한것을 통해서도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협력사업들을 파탄시키려는 그들의 고약한 심보를 잘 알수 있다.

오늘도 당국간은 물론이고 각계 단체들의 협력과 교류사업을 완전차단함으로써 북남관계의 모든 고리를 끊어버리고 동족대결을 최대로 격화시키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흉악한 기도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 최근 남조선집권세력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조치들을 《근본적변화가 아닌 전술적변화》로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북남협력을 위한 실무회담들을 결렬상태에 빠뜨린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의 길에 차단봉을 내리는것은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망동으로서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집권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6.15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격폐상태에로 몰아넣은 범죄적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으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심 철 영

완전히 드러낸 검은 속심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1963년에 개발되여 1968년부터 계렬생산에 들어간 핵폭탄 《B—61》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핵폭탄현대화에 20억US$, 핵무기탑재가 가능한 신형순항미싸일의 연구개발에 8억US$를 탕진하려 하며 《B—52》전략폭격기 등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데도 국방예산의 많은 몫을 돌리려 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공개적으로 핵무기현대화의 길, 핵전쟁의 길을 걷겠다는것을 공식선언한것과 같은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문명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것은 인류의 지향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문명을 파괴할수 있는 핵무기의 철폐와 핵군축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최근 벨지끄수상은 자기 나라와 네데를란드, 룩셈부르그, 도이췰란드, 노르웨이 등 5개 나라를 대표하여 유럽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시킬것을 미국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에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세계적인 핵군축요구가 이처럼 날로 높아가고있는 때에 미국이 핵무기현대화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인류의 평화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미국의 핵전략의 기본은 선제공격이다. 랭전시기의 《핵견제전략》을 핵선제공격전략으로 바꾼 미국은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의 방법으로 세계제패야망을 보다 손쉽게 실현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미국이 핵무기현대화를 다그치고있는것이 무엇을 노린것인가 하는것은 가히 짐작할수 있다.

최신예핵선제공격수단의 하나인 《B—61》핵폭탄현대화놀음은 미호전세력이 임의의 시각에 핵선제공격기도를 실천에 옮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핵무기탑재가 가능한 신형순항미싸일연구개발도, 《B—52》전략폭격기개조책동도 핵선제공격기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전략적의도는 핵무기현대화를 완성하여 절대적인 핵우세로 세계적인 패권을 틀어쥐고 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이다. 이로써 핵위협과 전파의 장본인으로서의 미국의 검은 속심이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

남을 그럴듯 하게 속여넘기는데서 남다른 《솜씨》를 보이고있는것이 미행정부당국자들이다. 그들은 집권하자부터 《핵군축》타령을 요란스럽게 불어댔는가 하면 그 무슨 《세계비핵화구상》이라는것까지 발표하였다. 그리고는 이런 병풍으로 저들의 침략적본색을 위장하고 그 막뒤에서 핵무기현대화와 핵전쟁준비책동을 강화하여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만적인 병풍마저 집어던지고 로골적으로 핵무기현대화책동에 달라붙으려 하고있다. 이번의 핵무기현대화계획도 그와 관련된다. 그들이 떠드는 《세계비핵화구상》이란 핵우세에 의한 세계제패야망과 동의어이며 뒤집어놓은 핵무력증강론이다.

그 기만성은 미국의 실지행동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고있다. 미국에는 2만여개의 핵탄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무기현대화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려 하는것은 핵무기수를 더욱 늘이겠다는것을 의미한다. 핵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있는것도 미국이다. 미국이 벨지끄와 도이췰란드, 네데를란드, 이딸리아와 뛰르끼예에 약 200개의 핵무기를 배비해두고있는 사실, 남조선에 1 000여개의 핵무기들을 전개해놓고 우리 공화국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있는 사실은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된다. 더욱 엄중한것은 얼마전 전 주일미국대사의 특별보좌관이였던 죠지 팩커드에 의해 1966년 미해병대가 일본의 이와구니기지에 핵무기를 끌어들였던 사실이 밝혀진것이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이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계속되여왔으며 그것이 동북아시아지역, 특히는 조선반도에 엄중한 핵위협을 조성하였다는것을 확증해준다. 미국이 일본과의 그 무슨 《사전협의》요 뭐요 하는것은 미일사이의 핵결탁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핵무기를 가질수 있는 나라와 가지지 말아야 할 나라들을 갈라놓고 후자에 속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도 저들의 동맹국들과 추종세력들의 핵무장화책동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비호하며 지어 뒤에서 그것을 조장시키고있다. 이것 역시 미국의 《세계비핵화구상》의 기만성을 립증해주는 다른 하나의 실례이다.

이미 공약한 《세계비핵화구상》에 대한 기만은 세계적인 핵군축노력에 대한 우롱이며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실천력이 결여되여있고 실속이 없는 《세계비핵화구상》은 바람소리와 같을뿐 아무런 소용도 없다.

미국은 그 무슨 《세계비핵화구상》을 운운하며 세계여론을 기만우롱하는 숨박꼭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군축과 평화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인류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핵군비증강과 침략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국제적고립과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김 종 손

기네방송, 에짚트신문 보도

정치와 군사의 거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7돐에 즈음하여 16일 기네방송들과 에짚트신문이 기념보도를 하였다.

기네라지오방송은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선군위업》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때로부터 17년이 되여온다.

이 기간은 조선이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은 전변의 나날인 동시에 정치와 군사의 거장으로서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특출한 령도력이 과시된 나날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선군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으시였다.

치렬한 반제투쟁을 동반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합법칙적 과정을 깊이 통찰하신 그이께서는 장구한 조선혁명사에 관통되여온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켜 력사의 새시대, 선군시대를 펼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국방건설을 선차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군사력을 튼튼히 다지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자위적국방력의 핵심인 조선인민군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완벽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선군시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오늘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는 선군사상과 군사중시로선을 틀어쥐고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걸출한 령도력의 고귀한 결실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계시여 조선의 선군위업은 승승장구할것이다.

이 나라의 국제방송과 7개 민족어방송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에짚트신문 《알 마싸이야》는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필승의 조선인민군》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은 조선인민군을 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위용떨치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된데 대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를 모시여 조선인민군은 필승의 강군으로서의 위력을 길이 떨쳐갈것이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대답을

여러 나라 통신, 방송이 보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반공화국체제전복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새로운 자료가 공개된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26일 여러 나라 통신,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에 대한 체제전복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예측할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이 조선의 《급변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진단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한 《공조방안》 등을 모의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조선과의 관계개선의사가 털끝만큼도 없으며 오직 《체제전복》흉책을 꾸미고 전쟁을 도발할 야욕만 있다는것이 다시금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흉책과 도발도 일거에 짓뭉개버릴수 있도록 틀어쥔 자위의 핵억제력을 더욱더 강화해나갈것이며 강위력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항시적인 격동상태에 두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조선인민군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기의 모든 잠재력을 다 리용할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면서 우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통신은 대변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그 무슨 《급변사태》를 바라는것은 미치광이의 얼빠진 망상이라고 하면서 《급변사태》는 내부모순과 《남남갈등》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남조선땅에서 터지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AP통신과 VOA방송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미국과 남조선에 반공화국체제전복을 노리는자들은 그가 주동이든 피동이든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무적강군의 진짜 핵맛, 노호한 천만군민이 벌리는 진짜 전쟁맛을 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하면서 대변인대답내용을 전하였다.

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해 강조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국가주석인 쭘말리 싸이냐쏜이 22일 당창건 55돐에 즈음한 경축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라오스인민혁명당이 창건후 지난 55년동안 언제나 인민의 리익에 충실하고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한데 대해 언급하고 현정세에 대처하여 당원들은 자기 민족과 제도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발휘하고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라오스를 번영하는 나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조직과 일군들, 당원들이 항상 인민의 리익을 생각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돌릴것을 호소하였다.

서방식 《민주주의》를 배격

끼르기즈스딴대통령 꾸르만베크 바끼예브가 23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서방식 《민주주의》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 나라에서 서방식 《민주주의》는 정치적자유를 더욱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그러한 《민주주의》는 민족의 발전과 진보에 더이상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 식의 민주주의를 확립하는것이 나라와 인민의 전통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데서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단죄

◎에짚트인민회의가 21일 팔레스티나령토에서 감행되고있는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단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당국이 꾸드스의 이슬람교성지들에 대한 침략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성명은 국제기구들이 이스라엘의 부당한 행위를 반대하는 단호한 결정을 채택할것을 호소하였다.

◎뛰르끼예외무성 대변인이 24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에 유태인살림집들을 새로 건설하기로 한것은 부당한것으로서 중동평화문제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립장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가지게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중동평화과정에 저애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 나라 외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을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나블루스시부근에서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을 무참히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불법무도한 행위로 단죄하였다. 그는 중동평화과정에 저애를 주는 그러한 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중국인민해방군 지방의 가물방지 및 재해구제사업을 방조할데 대한 통지문 하달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와 총정치부가 23일 공동으로 전군이 지방의 가물방지 및 재해구제사업을 방조할데 대한 통지문을 하달하였다.

통지문은 최근 나라의 여러 지방에서 가물피해로 인민대중의 생산활동과 생활이 큰 영향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전군과 무장경찰부대들이 가물방지 및 재해구제사업에 적극 참가할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문은 각 부대들이 중국인민해방군의 훌륭한 전통을 높이 발양하여 가물방지 및 재해구제투쟁에서 맡겨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국의 그릇된 정책을 반대하여 항의시위

—미국의 워싱톤에서 21일 당국의 그릇된 이주민정책을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시내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철회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23일 당국의 그릇된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공무원들과 로조단체성원들을 비롯하여 5 000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시내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자기들의 생활처지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당국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 배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릴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체스꼬, 오스트리아에서 친선모임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체스꼬와 오스트리아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16일과 19일 친선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장소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체스꼬조선친선의원단, 오스트리아국가인쇄소의 인사들과 성원들,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오스트리아국가인쇄소 소장은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보라》를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

나무심기

인도네시아에서 22일 전국적인 나무심기운동이 시작되였다.

이 나라 림업성은 이번 식수사업에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여 10억그루의 나무를 심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나무모생산을 늘이는데 많은 자금을 돌리고있다.

식료공업발전노력

알제리에서 식료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최근 수도에서 진행된 식료공업발전에 관한 토론회에서 식료품의 생산과 수출을 더욱 늘일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부정부패반대투쟁

시에라레온에서 부정부패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부정부패행위를 일삼는자들을 적발소탕하기 위한 깜빠니야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최근에만도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한 여러명이 법적처벌을 받았다.

실업률 감소

말레이시아에서 올해 1월에 실업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2% 줄어들어 3.6%에 이르렀다.

본사기자

아랍추장국련방의 두바이

미군범죄자처벌 요구

일본 오끼나와현의 나고시의회가 19일 주일미군의 범죄행위에 항의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최근 현에서 미군병사가 군용차를 미친듯이 몰고가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에게 부상을 입힌데 대해 규탄하였다.

결의는 미군범죄자를 당장 일본경찰측에 넘길것을 미군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눈사태 련이어 발생

카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주에서 얼마전 눈사태가 2차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눈사태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여러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도로들이 차단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령토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마찰

—일본의 령토팽창야망은 로씨야에 있어서 위협으로 된다.

이것은 최근 로씨야외무성 부상이 한 말이다. 로씨야외무성 부상이 거론한 일본의 령토팽창야망이란 로일관계에서 오래동안 풀리지 않고 매듭으로 남아있는 꾸릴렬도문제이다.

현재 일본이 령유권을 주장하고있는 남부꾸릴렬도에는 혹가이도동북부에 있는 4개 섬 즉 하보마이, 쉬꼬딴, 꾸나쉬르, 이뚜루쁘섬 등이 있다. 일본말로는 지시마렬도(흔히 《북방령토》라고 함)로 불리우는 남부꾸릴렬도는 로일사이의 오랜 분쟁의 력사를 가지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진행된 전승국들의 회담에서는 1900년대에 있은 로일전쟁시기 로씨야가 일본에 잃었던 남부싸할린외에 꾸릴렬도를 쏘련에 넘겨줄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는 1956년 쏘련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정부간 협정에서 법적으로 고착되였다.

당시 쏘련정부는 쏘일평화조약체결과 일본에 있는 모든 외국군사기지들을 철폐하는 등 일련의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에서 남부꾸릴렬도의 2개 섬을 일본에 반환할수도 있다는 쏘일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쏘련의 계승국인 로씨야는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1956년의 쏘일공동선언에 따라 일본에 남부꾸릴렬도의 2개 섬(하보마이, 쉬꼬딴)을 반환할 용의를 표시하여왔다.

하지만 일본은 그것만으로는 령토문제가 해결될수 없다고 하면서 4개 섬반환을 주장하고있다. 최근년간 일본에서 1년이 멀다하게 정권이 바뀌였다. 지난해에는 자민당을 밀어내고 민주당이 집권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령토적요구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있다.

현 일본정부는 로씨야가 남부꾸릴렬도의 4개 섬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다고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북방령토》반환을 요구하는 전국대회에서 일본수상 하또야마는 1956년의 쏘일공동선언과 관련하여 그것이 결론으로 될수 없다, 4개 섬귀속을 밝히는것을 출발선으로 삼자고 주장하였다. 일본 국토교통상도 《북방》 4개 섬은 《일본고유의 령토》로서 반드시 반환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일본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밑에 1983년에 책정된이래 개정된적이 없는 《북방령토》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침작성이 추진되고있다. 그 목적은 이곳 주민들이 고령화되는 실정에서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북방령토》반환의식을 심어주고 그 운동을 보다 광범하게 벌리려는데 있다.

주목되는것은 일본에서 로씨야와의 경제관계가 밀접해지면서 경제교류와 령토교섭을 《량쪽수레바퀴》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있는 점이다.

일본안전보장문제연구회 회장은 수상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로경제관계의 진전이 로씨야측에 일본이 령토문제를 배제한 새로운 관계구축에 나섰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방령토》문제와 경제관계를 《량쪽수레바퀴》로 규정하고 일로평화조약체결교섭에도 적극 달라붙을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수상자신도 경제교류와 령토교섭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할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령토문제는 경제관계와는 달리 예민한 정치적문제인것으로 하여 일본의 요구가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꾸릴렬도는 태평양함대의 무력이 전개될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있을뿐아니라 더우기는 오호쯔크해와 연해변강방향으로 침습해들어오는 외국잠수함들의 항행을 통제방어할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있다.

로씨야가 이런 지역을 순순히 내놓을리 만무하다.

해외침략을 꿈꾸고있는 일본도 남부꾸릴렬도를 차지하는것을 필수적인것으로 보고있다. 물론 일본이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령유권》을 한사코 주장해나서는데는 자연부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탐욕도 작용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이 보다 중시하는것은 이 지역의 전략적중요성이다.

그런것만큼 일본에서 4개 섬반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있는 속에서 나온 로씨야외무성 부상의 말은 로씨야가 일본의 그러한 요구를 안전보장상의 위험한 문제로 인식하고있음을 시사해준다.

령토문제를 둘러싸고 로씨야와 일본은 새해벽두부터 마찰을 일으켰다.

지난 1월 일본어선들이 남부꾸릴렬도부근에서 로씨야의 령해를 침범하였던것이다. 일본어선들이 거듭되는 경고사격에도 멈춰서지 않자 로씨야측은 침범한 일본배들에 조준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일본이 항의해나섰다.

로씨야외무성은 그를 단호히 일축하면서 남부꾸릴렬도연안에서 일본어선들의 어업활동을 금지하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협정과 로씨야련방의 령해질서를 엄격히 준수할것을 일본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명하였다. 그후 로씨야는 올해부터 꾸릴렬도문제 등과 관련하여 쌍방이 토의하는 《대화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정식 통지하였다.

로씨야의 해당 관리는 로씨야인섬주민들은 령토론의에 지쳤다고 일본에 강한 불쾌감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4개 섬반환요구에 그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것이라는 로씨야의 단호한 립장을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령토문제를 둘러싼 로씨야와 일본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두 나라관계에 부정적영향을 미칠것으로 외신들은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상전을 당혹하게 만든 중동의 야심적인 하수인

중동평화문제로 말하면 지난 세기 중엽에 산생된것이다. 제국주의세력의 적극적인 후원밑에 이스라엘이 일으킨 수차례의 침략전쟁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여러 아랍나라의 땅들이 파렴치한 날강도들의 군화발밑에 짓밟히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이 지역은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아랍나라들과 이스라엘사이의 치렬한 대결의 력사를 겪고있다. 이 문제를 산생시킨 공범자의 하나이며 중동지역에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미국은 그와 관련하여 매번 《중재자》의 역할을 자진하여 맡아나서군 하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선임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중동평화문제해결은 현 미행정부가 중요하게 내세운 야심적인 정치공약이다.

최근 미국은 2008년 12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 가자지대침공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중동평화과정을 되살린다고 하면서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미국의 고위인물들이 중동지역을 뻔질나게 행각하였다. 이런 속에서 최근 중동평화과정진척의 한 고리로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간접회담문제가 상정되였다. 간접회담은 미국《중재자》들이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쌍방사이를 오가면서 상정된 문제들에 대한 상대방의 립장과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하며 절충안을 만들어 합의점에 이끌어내는 형식의 회담이라고 한다.

그런데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간접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미국의 제안이 서리를 맞은 호박잎신세가 되였다. 간접회담의 일방인 이스라엘이 타방인 팔레스티나 동부꾸드스에 1 600동의 유태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던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난처하게 되였다. 《유태국가》의 창설로부터 그 행정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이스라엘을 중동의 핵보유국으로, 침략적인 중동지배전략실현의 충실한 앞잡이로 키우기 위해 정치군사적지원을 아낌없이 해온 미국으로서는 기른 개 발뒤축무는 격이 되였다. 이스라엘은 상전의 《은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부대통령의 이스라엘방문을 계기로 유태인살림집건설결정을 공표함으로써 세계면전에서 미국의 체면을 납작하게 만들어놓았다. 언제나 중동평화문제에서 이스라엘의 편역을 들어온 미국이지만 하수인의 이번 처사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미국뿐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은 중동평화회담재개와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 등 지역문제해결을 바라는 아랍나라들과 국제사회계의 강력한 규탄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은 이스라엘이 강점한 팔레스티나령토에서 《정착촌》건설을 중지하도록 할것이라는 미국의 담보가 있을 때까지 미국이 중재하는 이스라엘과의 간접회담에 나서지 않을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레바논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이 지역에서 평화를 이룩할것을 목표로 한 팔레스티나와의 새로운 회담에 착수할 의향이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요르단국왕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도발적인 조치들은 평화실현의 기회를 저애하고있으며 지역에서의 새로운 폭력사태시작을 암시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중동평화문제와 관련하여 로씨야에서 국제적회합을 가진 유엔과 로씨야, 유럽동맹, 미국으로 구성된 중동평화4자는 성명에서 동부꾸드스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모든 유태인《정착촌》건설을 동결할것을 이스라엘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국제사회계의 항의와 규탄을 불러오고있는 유태인《정착촌》건설은 이스라엘의 주장대로 단순한 주택건설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수십년전 팔레스티나땅에 비법적으로 《유태국가》의 말뚝을 박은 때부터 령토팽창야망을 추구하면서 아랍땅강탈행위를 일삼고 강점지역에서 유태인《정착촌》건설책동을 감행해왔다. 중동평화문제가 세기를 이어오며 오늘까지 탁상공론으로 되여오고있는것은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정책이 그 주되는 근원의 하나로 되고있기때문이다. 그래서 국제사회계는 이를 견결히 반대하고있으며 중동평화문제는 마땅히 《땅과 평화를 바꾸는》 원칙에서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어제도 오늘도 그러하듯이 유태인《정착촌》건설중지여부는 이스라엘이 평화회담재개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그런데 몇달전 유태인《정착촌》건설을 일시 중지할것이라고 발표한 이스라엘이 간접회담이 박두한 시각에 수많은 유태인살림집건설계획을 뻐젓이 발표하였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조치는 중동평화의 교란자, 파괴자로서의 본색과 령토강탈자로서의 강도적야망을 그대로 드러내보인것이다. 그것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아랍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도전이다. 동부꾸드스는 팔레스티나가 자기의 수도로 여기고있는 지역이다.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이곳에 뻐젓이 수많은 유태인살림집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망동은 꿈속에서도 양무리를 생각하는 파렴치한 승냥이의 속심과 다를바 없다. 며칠전 이스라엘수상은 국회에서 국제사회계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태인《정착촌》건설은 지난 수십년간 해온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고 줴쳤다.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은 국제법과 국제사회계의 요구를 무시하는 비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이스라엘이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중지하지 않으면서 그 무슨 《평화회담재개》에 대해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스라엘은 범죄적인 유태인《정착촌》확장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배 금 희

ㄱ-01051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 집 위 원 회